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논문

도심 미술관의 공공성 연구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경우

2015 년 1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배지운

도심 미술관의 공공성 연구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경우

지도교수 전 상 인

이 논문을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 년 1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배 지 운

배지운의 도시계획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 년 1 월

위 원 장 _____(인)

부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국문요약

도심 미술관의 공공성 연구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경우

미술관은 현대 도시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왜 수많은 도시들은 각자의 미술관을 가지려고 하며, 또 왜 많은 미술관들은 각기 다른 도시에서 유사한 모습으로 그 도시를 드러내고 있을까? 근대 시민사회의 소산인 “공중(the public)”의 개념과 함께 탄생한 미술관은 근대도시의 탄생 속에서 문화의 창출, 보존, 분배를 담당해왔다. 초기 계몽과 교육의 기능으로부터, 사적 관조를 위한 전시적 공간,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소비를 유도하는 문화산업적 공간으로 변모하면서 미술관은 모든 도시들의 경쟁적 투자 대상으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현대로 오면서 미술관의 대중에 대한 문화교육 기능이 강조되고, 문화를 통한 도시 발전의 사례들이 주목을 받음에 따라 미술관과 공중의 관계는 더욱 밀접해졌다. 이처럼 미술관과 공중의 관계의 확장은 미술관의 공적 가치가 단지 미술사적 맥락 또는 문화 자본적 맥락 외에 건축적이고 도시적이며 문화예술적인 입장에서 접근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미술관과 도시적 공공성, 건축적 공공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미술관이라는 공간이 갖는 문화예술사적 가치에 초점을 둔 문화사/미술사적 분석이나, 건축적 관점에서 공공성에 기여하는 건축적 구성에 초점을 둔 논문, 그리고 도시재생 정책과 도시 공공성

증진에 미술관을 하나의 사례로 다루고 있는 논문들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에 본 논문은 미술관이 지니고 있는 건축적, 예술적, 도시적 공공성의 요인들을 정리하고, 각기 다른 레벨의 요인들 중 공통된 부분, 즉 미술관을 통해 연결되는 공공성의 요인들과 미술관이 갖는 차별적 공공성을 확인함으로써 도심 미술관이 갖는 공공성을 다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각기 독립된 개념으로 또는 유사한 개념으로 설명되었던 건축적 공공성, 도시적 공공성, 예술적 공공성이 미술관이라는 공간 안에서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작용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공공성에 대한 이론적 발전과 현대 도심 미술관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현상적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해 옛 기무사 건물/부지를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사례로 삼아 건축적, 예술적 그리고 도시적 공공성을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문을 연 서울관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하던 건물이 도심 문화공간으로 재생된 사례이다. 조선시대 규장각과 종친부가 있던 자리였고, 일제 강점기에 수도육군병원으로 기능했으며, 1971년부터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령부가 자리했던 곳에 터를 잡았다.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공간으로 대표되던 기무사 건물은 조선시대의 정궁인 경복궁과 마주하고 있고, 서울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관광코스로 각광받고 있는 북촌한옥마을의 초입이며, 아트선재센터와 국제갤러리, 현대 갤러리 등 다양한 문화 시설이 밀집한 사간동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고, 이와 더불어 상업적 특수를 노리며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브랜드들이 입점하는 삼청동 상업지역의 중심에 위치해 있기도 하다. 현대미술관

과천관의 입지 문제로 도심에 미술관을 갖고 싶었던 미술계의 입장과 건축 및 문화유산계가 제기하는 종친부 이축 및 담장복원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다양한 이해가 뒤얽힌 이 자리에 들어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태도와 형식은 미술관과 도시의 사회적 관계 그리고 그에 따른 공공성의 추구방식들을 관찰 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기무사라는 폐쇄적 공간이 대중을 향한 미술관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건축적 공공성의 관점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이라는 위상과 기능이 이 일대 전통적 문화예술지구 및 일반 대중들과의 교류를 통해 만들어내는 교감을 예술적 공공성의 관점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청동 일대 상업공간으로의 변화와 경복궁 일대의 관광거점 지역화 등에 서울관 개관이 제공하는 도시적 공공성의 측면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라는 새로운 공간의 등장과 주변 지역간의 상호작용이 이 지역의 공공성 증대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종친부건물, 기무사 건물, 새로지어진 현대미술관 건물이 각기 어떻게 서울관의 다른 얼굴이 되어주고 있는지, 이는 기존 랜드마크 중심의 건축과는 달리 어떻게 현대미술관의 건축적 장소성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건축적 공공성 파트에서 살펴보고, 특히 마당의 개념을 확대하여 전시공간 특유의 닫힌 공간, 화이트 큐브의 특수성을 최소화하고 건축적인 개방성과 연계성을 강조한 특성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군도형 미술관이라는 건축적 특성이 어떻게 서울관의 전시 구성을 가능하게 하고 대중의 접근을 늘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일반 대중뿐 아니라 주변 예술지구들을 연결하는 중심지로서의 예술적 공공성의 측면을 들여다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관이 가지는 지역적 거점과 기존 관광자원들과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서울관의 개관이 서울 문화지도의 재편성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도시적 공공성의 개념과 앞서 설명한 두 공공성들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기존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본관과는 달리 컨템포러리 미술을 담기 위한 공간, 기무사라는 역사적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생산해내는 과정에서, 위계없는 수평적 건축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미술관이 갖는 공공성만큼이나 지역과의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더하고 있다. 여기서 소통이 강조될 수 있는 것은 서울관이 갖는 전이공간적 특성 때문이라는 걸 확인 할 수 있었다. 전이공간이 중요한 것은 기존의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기능을 단순히 연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지역이 갖는 정체성에 새로운 의미를 더할 수 있는 참여적 기회를 부여하는데에 그 의의가 크다. 이러한 특징은 단순히 이 장소가 어떻게 이해되는가에 그치지 않고 이후 이 지역이 지니고 있는 상징 경제(Symbolic Economy)의 활성화를 통해, 물리적 정체성, 즉 공익적 관점의 공공성 증진으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건축적 공공성, 예술적 공공성, 도시적 공공성, 미술관, 도시

목차

제 1 장. 서론	... 1
제 2 장. 공공성과 미술관	... 8
2.1 공공성의 개념과 영역	... 8
2.1.1 공공과 공공성	... 8
2.1.2 건축적 공공성	... 10
2.1.3 도시적 공공성	... 15
2.1.4 예술적 공공성	... 20
2.1.5 건축적, 도시적, 예술적 공공성	... 24
2.2 미술관의 위상과 사회적 기능	... 27
2.2.1 미술관의 진화	... 27
2.2.2 미술관의 공적 기능	... 30
제 3 장 연구 질문 및 분석틀	... 37
제 4 장.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요 및 현황	... 40
4.1 서울관 부지의 역사적 배경	... 40
4.2 국립현대미술관의 역사적 배경	... 42
4.3 서울관의 계획 및 설계	... 45
4.3.1 서울관 계획 및 설립 목적	... 45
4.3.2 서울관 기본 설계 및 공간 배치	... 49

4.4 서울관 주변 지역 개관	… 52
4.4.1 종로구의 문화지구적` 특성	… 52
4.4.2 관광 상업공간으로서의 확장	… 54
제 5 장.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공공성 분석	… 56
5.1 건축적 공공성	… 57
5.2 예술적 공공성	… 67
5.3 도시적 공공성	… 74
제 6 장. 결론 및 논의점	… 81
6.1 결론	… 81
6.2 한계 및 시사점	… 83
참고문헌	… 85

표 목차

표 1. 건축적 공공성의 정의	… 11
표 2. 문화예술의 가치	… 21
표 3. 공공성의 요인과 효과	… 26
표 4. 국립 현대 미술관 연혁 및 건축 세부사	… 43
표 5. 서울관의 설립목적	… 45
표 6. 국립현대 미술관 서울관, 과천본관, 덕수궁 분관 기능 재정립	… 47

그림 목차

그림 1. 건축적, 예술적, 도시적 공공성 분석 프레임	... 38
그림 2. 서울관 부지도	... 49
그림 3. 진입로에서 바라본 종친부	... 59
그림 4. 삼청로에서 바라본 현대미술관, 종친부, 기무사 건물	... 59
그림 5. 구 기무사 건물의 흔적을 남긴 외관	... 60
그림 6. 숙천제아도	... 62
그림 7. 서울관 평면도, 마당	... 64
그림 8. 서울관 평면도, 위락 시설 및 상업시설	... 64
그림 9. 서울관 평면도, 지하 전시공간 배치도	... 66
그림 10-1. 신선놀음, 문지방, YAP 2014 Seoul	... 68
그림 10-2. 신선놀음, 문지방, YAP 2014 Seoul	... 69
그림 11. 서울 북촌 주요 미술관, 박물관, 화랑	... 72
그림 12. 서울관 주변 도로 및 보행 경로의 변화	... 76
그림 13. 북촌의 문화지도	... 78
그림 14. 북촌 및 인근 지구단위 계획 구획	... 79

제 1 장 서론

미술관은 현대 도시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왜 수많은 도시들은 각자의 미술관을 가지려고 하며, 또 왜 많은 미술관들은 각기 다른 도시에서 유사한 모습으로 그 도시를 드러내고 있을까? 근대 시민사회의 소산인 “공중(the public)”의 개념과 함께 탄생한 미술관은 근대도시의 탄생 속에서 문화의 창출, 보존, 분배를 담당해왔다(윤난지, 2002). 초기 계몽과 교육의 기능으로부터, 사적 관조를 위한 전시적 공간,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소비를 유도하는 문화산업적 공간으로 변모하면서 미술관은 모든 도시들의 경쟁적 투자 대상으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현대로 오면서 미술관의 대중에 대한 문화교육 기능이 강조되고, 문화를 통한 도시 발전의 사례들이 주목을 받음에 따라 미술관과 공중의 관계는 더욱 밀접해졌다. 이와 같은 미술관과 공중의 관계의 확장은 미술관의 공적 가치가 단지 미술사적 맥락 또는 문화 자본적 맥락 외에 건축적이고 도시적이며 문화예술적인 입장에서 접근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1793 년 루브르 왕궁을 전시장으로 만든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부터, 1897 년 밀뱅크 교도소 자리를 재개발한 영국 테이트 갤러리와, 도시 계획을 통해 1997 년 프랑크 게리에 의해서 새로이 지어진 스페인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과 2000 년 발전소 건물을 리모델링한 영국의 테이트 모던까지 미술관의 공간은 다양한 건축적 방식을 통해 자신만의 장소성을 재창조 해왔다. 이러한 미술관 건축 방식의 변화는 곧 해당 도시에서 그 미술관이 제공하는 기능과 상징,

도시적 가치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과거 개인 또는 가문의 취향을 전적으로 반영한 왕조 또는 귀족 컬렉션을 기반으로 한 미술관들과는 달리 국가의 예산과 도시의 행정 기능을 통해서 설립 운영되는 미술관들은 해당 도시와 국가의 문화적 얼굴로 읽히곤 한다. 즉 미술관은 자신이 제공하는 미술작품의 공유를 통해 만드는 문화예술적 공공성에서부터, 건축적, 물리적 공간이 제공하는 건축적 공공성, 그리고 미술관을 방문하는 행위자들간의 상호 소통을 통해 생성되는 도시적 공공성에 이르기까지 다면적 공공성이 상호작용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술관과 도시적 공공성, 건축적 공공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미술관이라는 공간이 갖는 문화 예술사적 가치에 초점을 둔 미술사적 분석이나 (윤난지, 2002), 건축적 관점에서 공공성에 기여하는 건축적 구성(이소은, 2011)에 초점을 둔 논문, 그리고 도시재생정책과 도시 공공성 증진에 미술관을 하나의 사례정도로 다루고 있는 논문들이 다수를 이루었다(박진수, 김기수 2013). 이에 본 논문은 미술관이 지니고 있는 건축적, 문화적, 도시적 공공성의 요인들을 정리하고, 각기 다른 레벨의 요인들 중 공통된 부분, 즉 미술관을 통해 연결되는 공공성의 요인들과 미술관만이 갖는 차별적 공공성을 확인함으로써 도심 미술관이 갖는 공공성을 다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각기 독립된 개념으로 또는 유사한 개념으로 설명되었던 건축적 공공성, 도시적 공공성, 예술적 공공성이 미술관이라는 공간 안에서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작용 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공공성에

대한 이론적 발전과 현대 도심 미술관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해 옛 기무사 건물/부지를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사례로 삼아 건축적, 예술적, 그리고 도시적 공공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지난해 11 월에 문을 연 서울관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하던 건물이 도심 문화공간으로 재생된 사례이다. 조선시대 규장각과 종친부가 있던 자리였고, 일제 강점기에 수도육군병원으로 기능했으며, 1971 년부터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령부가 자리했던 곳에 터를 잡았다.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공간으로 대표되던 기무사 건물은 조선시대의 정궁인 경복궁과 마주하고 있고, 서울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관광코스로 각광받고 있는 북촌한옥마을의 인근이며, 아트선재센터와 국제갤러리, 현대 갤러리 등 다양한 문화 시설이 밀집한 사간동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상업적 특수를 노리며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브랜드들이 입점하는 삼청동의 초입에 위치해 있기도 하다. 현대미술관 과천관의 입지 문제로 도심에 미술관을 갖고 싶었던 미술계의 입장과 건축 및 문화유산계가 제기하는 종친부 이축 및 담장복원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다양한 이해가 뒤얽힌 이 자리에 들어선 국립현대 미술관 서울관의 태도와 형식은 미술관과 도시의 사회적 관계 그리고 그에 따른 공공성의 추구방식들을 관찰 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본 논문은 기무사라는 폐쇄적 공간이 대중을 향한 미술관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건축적 공공성의 관점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이라는

위상과 기능이 이 일대 전통적 문화예술 지구 및 일반 대중들과의 교류를 통해 만들어내는 교감을 예술적 공공성의 관점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청동 일대 상업공간으로의 변화와 경복궁 일대의 관광거점 지역화 등에 서울관 개관이 제공하는 도시적 공공성의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라는 새로운 공간의 등장과 주변 지역간의 상호작용이 이 지역의 공공성 증대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연구내용

1) 공공과 공공성에 대한 정의와 다양한 관점들에 관한 이론 고찰

공공과 공공성의 발달과 기존 연구들에서 나오는 다양한 정의들을 검토함으로써 공공성의 개념 변화를 정리한다. 이를 기반으로 참여와 소통, 그리고 공익의 분배를 강조하는 현대적 공공성의 개념을 제시한다.

2) 건축적, 도시적, 예술적 공공성 관련 선행 연구 및 분석 파악

사적 공간에 대한 대립적 개념으로서의 공적 공간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된 건축적 공공성의 확장과 이와 맞닿아 있는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도시적 공공성의 개념 및 기존 분석 지표들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공공성들이 앞서 설명한 관계와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또한 기존에 함께 연구되어오던 건축적 도시적 공공성과는 별도로 예술적 공공성을 개념적으로 정리하여 미술관 또는 문화기관이 제공하는 특징적 공공성 요인들을 확인하여 이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사례 분석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한다.

3) 미술관의 위상과 사회적 기능

기본적으로 미술관이라는 문화 공간이 가지는 문화적, 사회적 의미에 대한 개괄과 미술관이 현재 도시 공공성, 건축적 공공성과 예술적 공공성을 잇는 주요한 사례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도출한다.

4)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사례연구를 통한 공공성의 발현 분석

최근 조성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제공하고 있는 공공성을 건축적, 도시적, 예술적이라는 큰 틀에서 나누어 분석하고 이 세가지 측면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통해 도심 미술관이 제공하는 공적 가치들의 특징을 파악한다.

5) 이론적 틀과 사례분석 기반 도심 미술관의 공공성 증진 방향 제시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도심 미술관이 가지는 공공성의 다원적 측면과 공공성의 실현에 대한 논의점들을 제시한다.

(2) 연구의 범위

1) 분석적 범위

본 연구의 분석적 범위는 도심에 새로이 건립된 국립현대미술관이다. 이 미술관의 소장 작품과 장르적 특성과 작품 구성이 제시하는 공공성에서 부터 건축적 공간의 구성을 통한 공공성, 미술관을 둘러싼 행위자들, 작가, 관객, 큐레이터, 인근 갤러리 딜러 및 갤러리스트 등 미술문화벨트에서 형성되는 공공성, 그리고 미술관을 둘러싼 지역적 특성과 도시적 공공성까지 미술관을 통해 발현되는 공공성을 다원적 측면에서 기존의 공공성의 분류와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하나의 공간의 구성 요소와 구조, 사회문화적 위치라는 3 가지

측면에서 공공성을 설명함으로써 각 공공성의 상호작용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한 논의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개관 기간 때문에, 대부분 서울관 건축 설계에 대한 논문들이나 기무사 건물 및 종친부에 대한 역사적 의의 또는 건축적 활용 방안들에 대한 기사들이 주를 이루었다. 일부 사례들의 경우 서울관을 둘러싼 문화지리적 특성을 언급하기도 하였으나 이 역시 부지 선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그치거나, 사실상 이 지역적 특성들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어떠한 가치 창출에 기여 혹은 상호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관 설립 계획 당시부터 지금까지 고려되어온 도시적 맥락과 세 가지 측면의 공공성을 분석함으로써 도심 미술관이 가지는 특성을 새로운 관점에서 정리하며 더불어 공공성 연구의 이론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내용적 범위

본 논문의 내용적 범위는 건축적 공공성, 도시적 공공성 그리고 예술적 공공성의 유사점과 차별성에 중점을 두고, 공공성 개념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나 분석을 시도하는 대신, 도심 속 미술관이 작품, 건축, 행위자, 도시라는 네 가지 레벨에서 공공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건축적, 도시적 공공성과 예술적 공공성과의 상호작용에 집중함으로써 공공성들간의 밀접한 연결 고리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도시 계획에서 이러한 미술관의 공공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축이 표방하는 소통의 공간, 열린 미술관의 개념이 기존의 단절된 인근 지역들을 연결하며 새로운 문화벨트로서 어떤 의미와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현상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제 2 장 공공성과 미술관

2.1 공공성의 개념과 영역

2.1.1 공공과 공공성

“공공(Public)”의 일반적 의미는 단순히 개인의 집합체, 개인들 또는 그룹의 전체로 규정되거나 수사학적으로 개인이 아닌 함께, 공동체적 지향점 등을 포괄하기도 한다. 어원적으로 공공성은 크게 한문의 ‘公’, ‘共’, 영문의 ‘public’에 기원하고 있다. 먼저 한자로서의 공공(公共)은 한곳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함과 여럿이 함께 공평히 나누는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 영어의 public은 라틴어 pubes에서 유래한 단어로 개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벗어나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인 성숙성(maturity)을 의미한다. 공공의 개념은 정치학, 신문방송학, 행정학, 마케팅 등에서 대중, 특정 소비자 군, 이익집단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규정되고 있다 (Jahanzsoozi, 2006; Rowlin and Bowen, 2005).

이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성의 의미를 살펴보면 공공성 개념의 근원에는 공동성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깔려있다. 즉 공공은 특정 경계를 지닌 “분리할 수 없는 집단 (Indivisible Collectives)”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분리할 수 없는 기준이나 경계는 사회적이고 상징적인 기준들을 통해 규정된다고 본다. Mateus(2011)는 공공은 개인들이

사회활동을 통해서 만들어 내는 상징적 행동들과 공통된 감성을 공유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라고 보고, 여기서 그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공공에 속하고 있다는 소속감을 가지고 행동하는“사회”의 단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공성’은 사회 철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개인의 영역이 아닌 사회와 국가 조직안에 거주하면서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인식에서부터 발생, 사회구성원들의 정치경제적 요구에 상응하는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계속 재정의 되어왔다는 것이다. 공공을 규정하는 기준은 사회/문화적 경계안에서 공유되는 사회가치들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고 공공성의 규칙과 영역이 구축되는 장을 공공영역이라고 부를 수 있다 (조명래, 2013).

여기서 사회적 공공과 이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공공성(Publicness)은 공통적으로 인지되는 사회적 가치와 이를 내포하고 있는 대상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성에 대한 정의 역시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다. 본 논문이 주목하고 있는 공공성은 사회 안에서 유동적으로 형성되고 그‘구성 요인과 행위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재정의되는 역동적 의미의 공공성’을 전제로 한다. 예를 들어, 미술관이라는 사회문화적 공간의 등장과 그 공간이 도시의 공공성에 미치는 역할은 미술관 안팎에서 행해지는 행동들의 상호관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도심 미술관이 구현하는 공공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술관의 물리적 환경인 건축, 미술관이 지닌 문화예술적 기능, 그리고 미술관이 자리한 도시문화적 위치를 통해 각 단계에서 시민들과 어떤 방식으로 공공성을 구현하고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대적 공공성에 주목하여 본 논문에서는 예술적 공공성이 도시적, 건축적 공공성과 별개의 개념이 아닌 각 공공성들을 연결하고 확대하는 전이공간과 다양성 확보의 역할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여 건축적, 예술적, 도시적 공공성의 기존 이론들을 살펴보고 이를 본 논문의 사례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적용시키고자 한다.

2.1.2 건축적 공공성

먼저 건축적 공공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공공 건축물이나 복합 상업 시설 내 공적 공간들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공공 건축물로는 광장, 공원, 가로, 아케이드 등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고 공적 공간으로는 아트리움(Atrium), 카페테리아, 접견실, 실외 휴식공간 등이 포함된다(석은정, 2010). 건축적 공공성에서는 공공의 범위에 대한 명시가 명확하지 않은 대신¹, 건축을 통한 공공성의 증진, 건축을 통한 공공의 공간 구현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개념적으로 건축적 공공성은 ‘공통적인(common) 것’과 동시에 ‘도시적인(civil) 것’으로 건축가와 건축물 사용자의 다양한 범위와 행위에 의해 규정된다. 과거에는 건축에 있어서 공공성 및 공공 영역에 대한 개념이 소유주체에 따라 공적 영역(정부, 기관)과 사적 영역(기업, 개인 거주공간)으로 분리되었다면, 현대 건축의 공공성은 건축의

¹ 일반적으로 건축적 공공성에서는 그 해당 공간을 향유, 소비할 수 있는 잠재적 계층을 전부 공공이라 정의하고, 이 공공의 경계를 넓히는 것도 공공성의 증진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모두-함께-열린’이라는 개념을 기초로 이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임상진 1997, 김진욱 2003, 이윤희 2005, 이창훈 2006). 즉 잘 설계된 건축은 단지 일상적 생활공간으로의 기능뿐 만 아니라, 사회적 자산, 문화적 유산으로 확장 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특히 건축물의 문화적 공공성에서는 건축에 대한 창의적 기획과 설계 등을 증진하되 건축이 지역의 풍토, 역사, 환경과 유기적으로 조화되도록 고려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건축적 공공성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연구들에서 다양하게 정의되었다.

표 1. 건축적 공공성의 정의

임상진 (1997)	공간을 매개로 인간의 생활과 의식이 서로 만나고 의사소통하는 관계. 개념적으로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사회화된 존재, 타자와 관계하는 실존적 의미로서 인간이 경험하는 관계이며, 공간적으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을 떠나서 그들 간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는 의미
차홍녕 (2004)	조성된 공간은 적극적으로 도시 활동을 담고, 도시에서 독자적인 공간으로서 도시와 끊임없이 교감을 나누는 의미
이윤희(2005)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관계이며 공간적으로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을 떠나서 그들 간의 경험과 공간과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형성
최기원 (2005)	구체적인 건축적 공간을 통해 체류성을 획득함으로써 공공의 관계를 형성하고 활성화 시키는 의미

김진욱(2004)	행정적인 역할 뿐 아니라 개개인이 소유한 사적 건물과 도시와의 관계가 공공성 증진을 위하여 큰 역할을 함
윤지혜 (2006)	공동의 자산인 도시 속에서 일반의 다수를 위해 건축이 갖는 일종의 태도
장은영 (2002)	공공성을 건축적으로 해석한 정의로서 공공성에 중요시 되는 측면, 즉 ‘공공성의 관계’와 ‘공공의 이익’을 어떻게 건축화 시키는가에 대한 의미
정석 (1997)	공공에 대한 건축의 태도, 모두에 대한 건축의 태도와 함께함에 대한 건축의 태도, 공공성의 의미

앞서 공공성(Publicness)이 공통적으로 인지되는 사회적 가치와 이를 내포하고 있는 대상들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개념이었다면, 건축적 공공성은 건축과 공간이라는 물리적 환경을 공중(public)이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그 의미를 어떻게 재구성해 가는가의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중심으로 분석되어 왔는데, 그 분석 항목은 다음과 같다.

분석항목: 접근성, 쾌적성, 개방성, 연계성, 편의성, 심미성, 위계성, 연속성, 장소성, 인지성, 영역성, 교류성²

² 접근성: 이용자가 건축공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 쾌적성: 환경적, 정신적, 감성적 욕구 충족 정도, 개방성: 항상 모두에게 열려있는가, 연계성: 공간과 공간이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물리적으로 연계되는 정도, 편의성: 공간에서 이용목적을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는 정도, 위계성: 수직/수평으로 구조적 연계의 순위가 정해지는 정도, 인지성: 이용자가 공간을 용이하게 이용하고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요소, 교류성: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특성, 영역성: 안전을 전제로 이용자로 하여금 공간의 일시적인 점유나

여기서 공공성을 평가하는 지표는 해당 연구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접근성(접근의 편리함과 용이성),’ ‘쾌적성(환경적, 정신적, 감성적 욕구 충족 정도),’ ‘개방성(항상 모두에게 열려있는가)’ 등을 공통의 항목으로 들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상당수 건축 형태에 근거한 공공성, 예를 들어, 접근성, 쾌적성, 편의성 등에 주목하여 건축물이라는 물리적 환경에 제공하는 이익을 어떻게 수용자들이 소비하고 혜택을 받는가에 초점을 두어왔다. 이러한 건축 형태의 공공성은 주로 도시 경관의 관점에서 설명되곤 했는데, 이는 공공성이 큰 건축형태가 어떤 것이라는 단정적 판단이 쉽지 않고, 대부분 랜드마크적 관점에서 경관과 입지에 의거해 도시경제학적인 관점의 경제적 부가가치로 환산되는 경우가 많아, 획일적인 공공성의 분석 또는 비교가 주를 이루었다.

반면 차홍녕, 이윤희의 연구는 개방성, 연계성, 장소성 등을 통해 개인과 도시간에 건축적 공간을 통한 소통과 교류에서 생성되는 공공성을 바탕으로 도시와 건축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었다는 데에 그 차별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주를 이룬 건축적 공공성의 평가방법들은 개념적으로는 관계적 관점에서 소통, 상호작용, 인지 등을 점차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분석 지표는 여전히 조성된 공간이나 건물의 결과적이고 물리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장소간의 연속성과 상호작용, 그리고 장소를

배타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정도, 전이성: 영역간의 경계부에 내외부 공간의 이질적 성격을 완충시켜주는 공간적 특성

기준으로 한 공공의 인지와 지식 공유등 장소성이나 인지성은 기존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건축적 공공성의 기존연구들의 한계는 앞서 설명한 분석적 한계뿐 아니라, 실증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건축적 공공성의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오피스 빌딩, 주거용 건축물, 공공 건축물 등의 개별 건축물과 광장, 공원 등의 공공 영역으로서 도시 공간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왔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오피스 빌딩의 공개공지가 연구의 중심을 차지해 왔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미술관과 같은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시민회관 및 문예회관, 자치 구청사 등에 대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문화시설의 입지, 외부공간요소, 내부공용요소, 내부기능 공간 등으로 분리하여 접근성, 연계성, 개방성, 쾌적성, 체류성 등의 공공성 구현요소를 분석해왔다. (최기원 2005, 김왕식 2006).

문화시설과 같은 공공건축물은 수해지역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지역의 공공재로서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 다양한 기능을 담고 있는 공간으로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만들어진 결과물 위주의 공간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한 계획요소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공공건축물이 만들어진 과정이나 그 과정에서 시설을 직접 이용할 시민의 참여 등을 고려한 공공성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또한 문화시설 등도 기존 건축적 공공성의 연장선 상에서

주로 연구된 반면 도시적 또는 문화시설 만의 특수한 공공성의 특징을 제시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다음장에서는 도시적 공공성이 갖는 의미와 도시적 공공성의 특징을 기존 연구들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2.1.3 도시적 공공성

도시적 공공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건축적 공공성의 연장 선상에서 건축물이나 공개공지와 주변 지역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거나, 이태원 도시 공간, 광화문 거리,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과 같이 도시공간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로 확대되고 있다.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이종욱(2003), 이윤희(2005) 등과 같이 기존의 도시공간에 대한 공공성 연구와 송영석(2004), 장석준(2005), 정우인(2006) 등에 의한 도시개발에서의 공공성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도시적 공공성은 큰 의미에서 도시 공간 즉 토지와 건축물의 공익적 사용과 기존 도시제반 시설의 건전하고 안전한 사용을 통한 공적 활용이라는 두가지 측면으로 규정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지방 자치제도의 시행에 따라 각 행정 도시별 도시 계획의 자체적 수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각 도시별, 지역별 추구하는 공공성에 대한 접근이 다른 부분들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크게는 중앙정부와 지역 정부와의 관계 작제는 행정 지구 또는 문화/상업 지구별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지역들이 각자의 사회적 수요와 공중의 요구, 공공의 관계와 그로인해 발생하는 이익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시적 공공성은 도시 전체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의 공공성으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 공간, 개별 정책 등을 통해 발현된 공공성들의 집합체라는 것이다. 즉, 하나의 주도적 공공성만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지역성의 발현이 강조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적 공공성은 앞서 확인한 건축적 공공성들의 집합에 대한 고려와 한 곳에서의 변화가 다른 지역과 연계 공간들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를 미리 예측하고 계획해 나가는 도시 계획을 통해서만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건축적 공공성의 확장에서 자주 도시적 공공성의 증진이 거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적 공공성을 증진시키는 직접적인 사례들은 공원의 조성이나 운동, 위락 시설 구비, 또는 대락이나 주택 공간의 담장 허물기 등 특정 기능을 기닌 공간의 확보와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지 건축적 공공성의 해당 요인들이 어떻게 도시 수준의 공공성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물론 공적 영역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 자치 단체의 공공청사 일부를 예식장이나 독서실, 체력 단련실 등 지역 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개방성을 강조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도시적 공공성을 구성하는 요인들과 건축적 공공성의 구성하는 요인들간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이는 단지 도시 계획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자원과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의

사용을 권장할 것인가라는 물리적 접근에 그치지 않고,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혜택을 어떻게 구성하였을 때 최대화 할 수 있는가라는 사회적 참여의 문제를 담고 있다.

특히 현대의 도시적 공공성은 과거 개발 중심적인 성장형 분배논리 보다는 건축/도시 공간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하여 도시를 공공적, 문화적, 미학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는 곧 그 지역, 도시가 주창하는 정체성이 무엇이며, 그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사업 혹은 구성원의 참여가 권장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는 것이다.

도시적 공공성은 도시라는 복합체에 대한 분석인 만큼 그 분석 지표들에 대한 기존 연구들도 다양하다. 이종욱(2003)과 이윤희(2005)는 이태원과 광화문이라는 각기 다른 공간을 대상으로 vitality(생명력), identity(독자성), sense of place(장소성), sense of occasion(경우성), fit(적합성), access(접근성), control(조절능력) 등을 바탕으로 도시의 구역, 그 중에서도 가로에 담긴 공공성을 분석하고 실태 파악을 통해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Lynch(1981)의 분석 지표를 기반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분석 지표로 도시 공공성의 요인들과 그로 인한 효과를 분류한 것이다. 이는 건축적 공공성과 마찬가지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경계를 떠나서, 경험과 공간과의 인터페이스를 바탕으로 한 공공성을 반영하는 인지지도를 반영하고 있다.(김영빈 · 이현호, 2011).

Kevin Lynch 가 말하는 도시적 공공성의 요소는 아래와 같다.

- 1) 생명력, 활력(Vitality): 가장 기본적인 도시 구성원이 살아가기 위한 물리적, 환경적 필수 요소들의 제공 상태를 의미한다.
- 2) 접근성(Access): 도시가 제공하는 요소들이 특정 지역 및 구성원들에게 전달 될 수 있는 능력을 지칭한다. 이는 다양한 사회자원에 대한 접근성뿐 아니라 지역간의 자원 이동의 효율성도 포함하고 있다.
- 3) 효율성 & 형평성(Efficiency & Justice): 도시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이 혜택들과 비용이 형평성 있게 분배되고 있는가의 관점으로 높은 공공성은 같은 종류의 혜택이 최대한 전달과 분배과정에서 손실없이 제공될 수 있을때 더 증진될 수 있다.
- 4) 장소성(Sense): 공간이 인지되는 감각을 지칭하며, 이는 개개인의 인지 능력의 차이를 넘어 도시가 제공하는 장소성(Sense of place)으로 유사해야 한다.
- 5) 적합성(Fit): 특정 지역에서 행해지는 행동에 대한 이해도와 적절성을 지칭한다. 때때로 전이 지역처럼 각 지역 또는 구획을 연결하는 경계공간의 모호성은 두 공간을 연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 6) 통제성(Control): 도시의 공간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정도를 말한다. 특히 사회문화적, 환경적 질을 통제하여 구성원들간의 반목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의 6 가지 도시적 공공성에 기여하는 요인들은 앞서 다른 공공성들과 마찬가지로 도시가 도시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공적인 이익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분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능적 부분과 개인들이 도시를

인지하는데 있어서의 공통된 견해, 특정 지역에 대한 이해와 지역간의 이해도의 관계, 그리고 도시 공간의 사회적 소통의 정도 등 도시 안에서 구성원이 물리적 환경과 맺는 관계의 적절성에 따른 공공성을 확인하고 있다. 건축적 공공성이 건축 구조, 시설 등에서 발현되는 기능적 효과들에 중점을 두었다면, 도시적 공공성은 위의 요인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발현되는 효과들에 주목했는데, 정체성, 연속성, 방향성이 그것들이다. 여기서 정체성은 다른 도시로부터 명확한 성격으로 구별되며 쉽게 이해되는 도시의 선명한 이미지 또는 매력을 의미한다. 이는 물리적인 것과 개념적인 것 두 가지를 다 포괄하고 있는데 도시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물리적 요인들은 경로, 경계, 구역, 거점, 랜드마크 등 도시의 구성 요소들인 반면,³ 개념적 정체성을 구현하는 요인들은 그 도시의 건축적, 문화적 요인들과 관계적으로 만들어내는 보다 복합적인 결과물이다. 연속성은 장소의 흐름이 연속적이고 끊기지 않음을 의미하며, 드라마틱하고 리드믹한 생활 환경을 제시한다. 특히 단기 공간적 전이뿐 아니라 역사적 전이와 같은 시간적 전이도 포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방향성은 현재 자신의 위치 및 이동에 대한 명확한 인식 정보로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분명하고 안정적인 정보를 의미한다.

³ 경로(Path): 도시를 관찰하고 도시의 구성요소들을 배치되어 관련하는 관계를 확인하는 이동 경로, 경계(Edge): 두 지역 사이의 경계의 명확-모호성, 지구(District): 외부적 구역 뿐 아니라 관찰자/수용자가 규정하는 특징을 지닌 지역/구역, 거점(Nodes): 도시내부의 주요한 지점. 일반적으로 교통의 요지나 경제적 거점, 랜드마크(Landmark): 관찰자가 외부에서 도시를 인식할 때 강하게 드러나는 정체성을 지닌 요인.

2.1.4 예술적 공공성: 예술에서 공공성은 왜 중요해졌는가

예술적 공공성은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작품을 통해서 얻어지는 공중의 공익과 문화적 공간에서 형성되는 공통된 문화적 성향과 이해를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예술품은 개인적 소비라고 보았던 근대 이전의 개념이 공중의 확산과 미술관의 등장으로 인해 대중을 예술의 영역으로 영입하려는 시도로 점차 확대 되었다(윤난지, 2002). 특히 미술관이 예술품을 단순히 소장, 전시하는 공간에서 교육과 문화의 재생산이라는 기능으로 그 초점을 옮기면서 학계와 실무 양측에서 예술이 지니는 공공성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Zolberg, 1986).

이후 영국의 “창조산업”활성화 전략, 현 정부의 “창조경제”등 문화를 국가 기반 산업으로 정의하고 접근하는 시도가 늘어나면서, 문화가 현대 시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들에 대한 논의가 심층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특히 순수예술에 있어서는 근대 도시의 성장과 함께 나타난 미술관 / 박물관이라는 조직적 공간이 도시와 국가의 정체성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이는 문화예술 작품이 제공하는 내용적 자극뿐 아니라, 미술관/박물관이 제공하는 문화 환경이 그 건축적 형태와 방식에 영향을 받고, 더 나아가 도시 내부의 공간과 공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형성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문화 환경이 지역과 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예술의 가치는 크게 경제, 도시, 공공성, 생활의 측면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본다.

표 2. 문화예술의 가치⁴

부문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 창출 - 문화부문 및 전체부문에서 일자리 확장 - 사회의 문화적 발전 증진 - 창의도시와 공동체 육성
경제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유입을 통한 도시 중심능력 강화 - 문화, 예술, 장인 등 강한 정체성에 기초한 공동체창출 - 문화관광의 목적도시(destination city)화 - 독창성에 바탕을 둔 기업적 파급효과 - 도시 재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적 재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재생 조력 - 스테레오타입화 된 공동체에 새로운 아이덴티티 부여
도시재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과 지역사회의 재활성화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가와 문화활동가를 통한 도시공간 재활성화 - 문화예술적인 도시하부구조 형성 - 도시미학과 매력의 증진
공동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결속력 강화
정체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브랜드 개발 및 타공동체와 차별화
금지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긍지 육성 - 과거와의 대화를 통한 공동체 기억 보존
공동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 대화 강조
긍정적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성에 바탕을 둔 공동체 육성 - 건강한 공동체 행위 개발

⁴ 라도삼, 「문화환경이지역에미치는영향」,시정개발연구원,2006,p.77

공동체의	- 공동체의 동기화 및 활동을 위한 강력한 동기부여
긍정적 변화	- 공동체 능력과 리더십 조직력

	- 삶의 질을 강화시키는 공동체의 형성과 문화적 결속강화
삶의 질과	- 문화예술에 바탕을 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과 외부활동
장소의 질	견인
	- 평생학습을 통한 삶의 질 증진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화가 생산하는 가치 자체가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공공성의 결과들이 경제, 도시, 공동체적 삶의 질 등에 고루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설명한 건축적 공공성과는 달리 공공성의 파급 효과와 결과에 해당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으로, 예술적 공공성을 증진 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적 논의는 미비하다.

예술적 공공성은 도시적 공공성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문화기관, 공공 건축물로서의 미술관/박물관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공성 논의에서 이 부분을 함께 고려하거나 반영한 연구들을 찾기 어렵다. 직접적으로 문화 공간, 예술적 공공성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존 공공성 논의에서 예술적 공공성에 가장 근접하게 맞닿아 있는 것은 공공디자인에 대한 논의들일 것이다. 최근 들어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옥외 광고물 등의 규제와 함께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디자인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예술적 공공성과 도시적 공공성을 잇는 하나의 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관

주도의 공공디자인의 확대는 그 논란만큼이나 예술과 도시를 함께 생각하게 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예술이 제한된 공간 안에서 소비, 상주되는 문화가 아니라 도시 전체와 상호작용함으로써 앞서 설명한 문화가치들을 생산하고 소통 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앞서 건축적 공공성이 지니고 있던 문제와 유사하게 공공디자인 역시 탈맥락성, 통합성의 결여, 공동성의 결여 등의 소통과 참여를 중심으로 한 공공성의 발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조명래, 2008). 특히 기존의 건물을 없애고, 관주도의 획일적 공공디자인의 추구는 건축이 이야기하는 재생과 소통이라는 측면과도 배치되고 있다. 예술적 공공성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역사와 문화를 자산으로 하되 지속성을 고려하여 추구되어야 한다. 또한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도시적 맥락이나 거시적 도시틀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논리의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진정한 시민을 위한 개발방식이 무엇이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전인호 2008).

기존 문화기관의 공공성과 공공디자인에 대한 연구들, 또는 미술관이라는 공간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들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문화적 공공성은 크게 4 가지 정도의 요인을 통해 구축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 심미성은 문화 예술은 기본적으로 향유하는 자에게 미적 가치를 제공하고 이는 심미성이 높을수록 증진될 수 있다는 접근이다. 둘째, 공공재적 특성은 문화 예술 작품이 갖는 재화적 특성으로 소비에 따른 소모가 없거나 적어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제공될

수 있다면 그 공공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⁵ 셋째, 문화예술은 특정 장소 또는 공간을 통해서만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그 플랫폼이 연결자(Bridge)로서 공공성의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작품과 공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제공되는 문화적 가치의 다양성이 공공성 증진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한나 아렌트의 문화 다원주의(Plurality)의 개념과 같은 맥락으로, 그녀는 공공성의 전제로 “복수성(Plurality)”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서 공공성의 부재는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가치가 함몰되고 단일한 가치만을 추구할 때, 즉 복수성이 억압될 때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문화예술의 근본적인 태도(attitude)가 획일적이고 대량 생산적인 것을 거부하는데 있었다는 점이 가정되는 한 문화적 공공성과 다양성의 연관성이 높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2.1.5 건축적, 도시적, 예술적 공공성

지금까지의 건축적, 도시적, 예술적 공공성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각각의 공공성들이 지니고 있는 개념과 관련 연구의 차이점 및 한계점들을 살펴보았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건축적 공공성은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그 대상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도시적 공공성과도

⁵ 공공재: 경제학에서 경제 재화 혹은 서비스를 크게 ‘사유재(private goods)’와 ‘공공재(public goods)’로 나누는데, 공공재의 특징은 크게 ‘비경합성’과 ‘비배타성’을 기본으로 한다. ‘비경합성(non-rivalry)’이란 소비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한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이는 미술품을 한 사람이 보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동시에 같이 보아도 그 가치가 전혀 손상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기에 비배타성(non-exclusive)이란 재화의 서비스에 대해 특정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소비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밀접히 연결되고 있다. 반면 도시적 공공성은 실제 공공성이 실현되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분류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도시적 공공성이란 결국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실체들을 통해서 소통하는 시민들과의 상호작용이 있어야만 발현되고 확인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건축적 공공성을 확장하며 결과보다 프로세스 중심으로 전환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 공공성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작용을 통해 각각의 공공성을 재구성하는가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건축적 - 도시적 공공성의 연결고리 중간에 예술적 공공성을 놓음으로써 프로세스를 보다 명확히 해석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건축이라는 실체가 도시와 연결되어 공공성을 발현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제는 그 건축의 기능과 목표 그리고 그 건축이 놓인 맥락이 공공성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또 그 공간이 놓여있는 도시와 얼마나 상호작용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즉 앞서 설명한 예술적 공공성은 미술관, 박물관, 문화기관이라는 해당 특수 목적을 지닌 기관에서만 발생하는 심미적 공공성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 건축과 내부의 프로그램과 구성을 통해 만들어지는 공공성과 나아가 해당 지역, 도시와 함께 공공성을 창출하는 건축적-도시적 공공성의 가교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건축, 공간으로서 미술관이 지니는 의미와 상징성 및 랜드마크, 거점 공간으로서 도시적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보고 전이공간으로서의 미술관이 지역과 도시의 정체성과 연속성을 구현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표 3. 공공성의 요인과 효과

	공공성 요인	공공성 효과
건축적 공공성	접근성, 편의성, 쾌적성	기능적 효율
	개방성, 연계성, 위계성, 장소성	최고의 소통
예술적 공공성		문화 경제적 효과
	심미성,	문화벨트효과
	문화소비/교육(공공재)	도시재생,
	전이 공간, 다양성	공동체적 정체성
도시적 공공성		문화계층 정체성
	통제성, 효율성/형평성,	방향성, 물리적 정체성,
	생명력/활력	소속감
	장소성, 적합성, 접근성	개념적 정체성, 연속성, 연결성

먼저 공공성을 만드는 요인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들을 건축적, 예술적, 도시적으로 구분하고, 각 요인과 효과들 중 기존의 연구들에서 덜 강조되어왔던, 장소성, 개방성, 연결성, 전이공간 등에 주목하여 건축-예술-도시를 잇는 공공성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는지를 사례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물론 몇몇의 항목들은 그 자체에 대한 연구가 적어 기존 연구들에서 명확히 언급되거나 분류되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일부 연구에서는 건축적 도시적 연구를 함께 묶어 제시하여 요인과 효과들을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최대한 각 항목에 맞도록 정리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이와 같은

공공성의 요인과 효과의 분류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유사 미술관들의 사례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술관이라는 특수한 공간이 갖는 사회적 위상과 공공성의 요인들을 먼저 검토하도록 하겠다.

2.2 미술관의 위상과 사회적 기능

2.2.1 미술관의 진화

미술관은 작품, 인력, 대중, 건축 등 4 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기본적으로 미술관은 미술작품을 수집하고 보존 및 연구 그리고 교육 및 전시하는 기능을 가진 문화 시설로 작가, 비평가, 화랑 및 교육기관 등과 연계하여 미술 문화의 발전을 이끄는 구심점 역할을 한다. 여기에 나아가 현대의 미술관은 국가 문화 수준의 역량을 평가하고 문화 관광 중심 콘텐츠로 부상하고 있다.

ICOM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에 따르면 “미술관은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일련의 제 요소를 보존 연구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하며 특히 대중의 기쁨과 교육을 위해 전시하는 목적을 가지고 관리되는 항구적인 시설을 가리킨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AAM (American Alliance of Museum)의 경우, 미술관이 공공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하고 학교와의 연계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중요하며, 나아가 지역 경제의 원동력으로까지 미술관의

중요성과 확장성을 강조하고 있다. 두 정의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그리고 앞서 서론에서 밝힌 것처럼, 미술관은 근대 시민 사회의 산물인 “공공”과 함께 발전해 왔으며, 그 정의에 대중과 공공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미술관, 박물관이 지니는 위상은 18 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유럽과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변화해왔다. 먼저 유럽의 미술관들 왕정 국가 기반의 컬렉션 확보와 역사적인 자원들을 기반으로 왕궁 또는 귀족의 건물에 비치된 소장품들이 개인 컬렉션 별로 일부의 개인들에게 소장품을 공개하는 방식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러한 개인적, 귀족적 취향이 공공 미술관을 통한 대중들에 대한 소장품 공개로 전환된 것은 공공미술관의 역사와 그 길을 같이 한다. 1793 년에 개관한 프랑스 루브르 미술관의 설립과정이나 1759 년에 개관한 대영박물관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 미술관들의 공공성의 개념은 18 세기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역사가 깊다. 이후 프랑스는 보다 국가 주도적인 미술관/박물관 체제를 확립하여 대중에 대한 문화 예술의 공개와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적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식을 선택하였고, 영국의 경우는 민간과 공공 부분이 결합하여 운영되는 특수 법인 형태의 비정부 공공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y: NDPB)을 통해 운영되어왔다. 이와 같은 운영 방식의 특징은 정부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받아 운영 및 보고하는 의무를 지지만, 미술관 및 박물관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이익을 국가에 반환할 의무가 없어 이를 다시 전시 및 컬렉션, 시설 등에 대한 재투자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민간으로부터 기부 및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과 국가 주도적 공공성의 발현에 사적 미술관의 장점을 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 받기도 하였다. 한국도 이러한 장점에 주목하여 영국식 미술관의 정책을 본 따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럽과는 달리 미국의 경우는 대부분 민간 주도의 비영리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사립미술관을 중심으로 19 세기 후반부터 급속히 발달하게 되었다. 모더니즘의 발달과 함께 전성기를 이룬 미국의 미술관들은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약 100 여년의 기간동안 여가 및 교육의 공간으로서 미술관을 강조하며, 관객과의 소통,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의 강조 등 미국 미술관들이 가지는 공적 기능의 특징을 만들어냈다(Kotler and Kotler, 2005)

미술관이라는 상징적 공간이 발달을 거듭하며 도시에서 지니는 의미 또한 달라졌다. 왕정 귀족 중심의 컬렉션들이 기존의 왕궁, 귀족의 집 또는 볼룸이 있는 관공서 건물들을 활용하여 대중들에게 선보여졌던 과거에는 그 작품이 놓여있는 그 장소, 그 왕궁, 그 귀족의 거실이라는 장소성이 매우 큰 의미를 지녔다. 그 건물이 지니는 사회적/도시적 맥락 안에서 작품은 당시의 카펫트와 커튼,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관객들과 마주하게 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모더니즘과 함께 발달한 미국의 미술이자 20 세기의 미술은, 브라이언 오 도허티(Brian O'Doherty)가 “화이트 큐브안에서(inside White Cube (1999))”에서 쓴 것처럼, 미술 작품을

위해 지어진 공간의 그 작품만을 위한 하얀 사각의 방 안에서 도시나 다른 맥락에서 벗어나, 예술 작품 그 자체로 존재하기를 강요받고 있다. 여기서 화이트 큐브란 문화예술적 초공간이자 비공간을 의미하므로 오히려 미술을 위한 미술을 강조하면서 작품의 맥락 또는 장소성을 지우는 대신, 미술관마다 다른 공간이 아닌 미술관이라는 하얗게 살균된 중성적 공간들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다른 도시적 공간들로부터 격리된 무균의 문화 공간으로서의 미술관은 세속화 움직임에 따라 미술관은 쇼핑몰처럼, 전시는 스펙타클로 변하게 되었고, 다국적 기업같은 면모를 보이는 곳도 등장하게 되었다. 현대미술관은 소비를 유도하고 새로운 직종을 창조하는 문화산업으로서의 미술관이 강조되면서 미술관은 뮤지엄 샵, 카페, 레스토랑 등 다양한 복합문화 소비시설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샵이 먼저 눈에 띄고 가장 마지막에 다시 샵을 통해 나가게 되어 있는 동선처럼, 미술관도 더이상 내적 공간의 강조뿐 아니라 다수의 대중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해당 도시와 소통하는 미술관으로 거듭나게 된다.

2.2.2 미술관의 공적 기능

미술관은 건축적, 도시적 공공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선별적 분석 요인들과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 미술관은 미술관을 구성하는 작품, 건축적 공간, 행위자(작가, 학예사, 관객), 그리고 미술관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위치의 측면에서 각기 다른

공공성을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공공성들은 궁극적으로 미술관이 대표하는 도시의 정체성과 도시의 사회문화적 공공성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먼저 미술품은, 특히 개인의 소유가 아닌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미술품의 경우, 대표적인 공공재로 분류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국/공립미술관은 미술품 본연의 가치보다 훨씬 적은 비용만으로도 그 미술작품을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서 설명한 공공재의 특성인 비배타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미술품은 반복적으로 소비하여도 가치가 늘어날 뿐 감가되지 않는다. 오히려 재화의 가치는 늘어나는 관람객의 수만큼 증가하고, 그 한계는 무한대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미술관을 영속적 인류의 자산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건축적 공간은 외적 건축 형태와 내적 공간 구성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내적 공간 구성의 측면에서, 미술관은 크게 전시 공간, 휴식(유희)공간, 주변 지역간의 연결공간(통로, 대공간)등 세 가지 공간을 복합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 각각의 공간들에 대해 개방성 / 연계성 / 접근성 / 편리성 / 체류성 등 기존의 건축적 공공성의 개념을 가져다 미술관의 기능과 구성에 접목시킨 연구들도 있었다(이소진, 2009).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술관이라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건축적 공공성에 부합하는 사례이기도 하고, 또한 도시재생 등 건축적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이 일어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4 년에 리모델링을 끝낸 MoMA(Museum of Modern Art)나 CAM(Cleveland Art Museum)의 경우는 기존의 옛 건축물을 확장시키는 개념으로 새로 디자인된 공간을 결합시켜, 앞서 설명한 건축적 공공성을 전폭적으로 증진시킨 사례들이다. 먼저 MoMA 의 경우 West New Wing 에는 주요 특별전시 갤러리가 들어섰고, East New Wing 에는 교육관과 기록물 보관실이 들어섬으로써 5 배 이상의 넓은 공간과 중정, 테라스 공간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클리블랜드 박물관의 경우도 기존의 아시아 컬렉션들을 New Wing 으로 분산하여 상설전시의 규모를 늘림과 동시에 새 건물과 옛 건물을 잇는 공간을 거대한 Atrium 으로 만들어 카페테리아, 인공 정원, 뮤지엄샵 등 아케이드와 공원의 중간형태인 공공 공간으로 박물관 방문자들이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적 구성은 미술관 본연의 문화 예술 향유의 기능에 도시적 공공성 또는 건축적 공공성의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연계시킨 사례들이다. 다만 이 건물형태적 공공성들이 미술관의 문화예술 가치와 합쳐지면서 만들어내는 가치들을 예술적 공공성으로 볼 것인지 도시적 공공성으로 볼 것인지는 어떤 요인을 중점적으로 어떤 효과를 언급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미술관의 공적 기능은 미술관이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들을 향유하는 소비자를 향한 공공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대 미술관들은 전시와 교육이라는 전통적 기능 이외에 관람 활동의 편의와 미술관과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기 위한 서비스 활동(카페, 판매, 휴식 등)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과거 왕궁의 컬렉션이나 화이트 큐브로서 모더니즘 미술관이 가졌던 높은 문턱을 낮추고, 열린

공간으로서 포스트 모던한 미술관으로 전환하며 미술관의 화이트 큐브와 터널들은 공간의 활용 방식을 바꾸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대공간, 중정, 통로공간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 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시 공간이 휴식 공간으로 휴식 공간이 전시 공간으로 변화하는 실험들을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미디어 아트나 실험 예술 등 White Cube 의 정제된 공간을 요구하는 매체들이 아닌 경우 미술관은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과거의 전통적 미술관이 관람방식이나 동선 등에서 관객과의 일방향적 소통을 추구하였다면, 오늘날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적 소통이 가능해짐에 따라 “만지는” 전시, “느끼는” 공간, “거니는” 작품 등 보다 다양한 체험 방식을 전시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감소한 여가 시간을 압축적으로 사용하려는 라이프 스타일을 적극 반영하여 미술관 운영 프로그램에 서비스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들, 미술관에서의 식사, 음악 공연과 전시, 책읽기와 미술, 여행과 전시 등 시설적인 복합성과 프로그램적 복합성을 통해 확장된(extended) 미술관을 만들고 있다. 이는 미술관이 기존 도시재생이나 건축물에 설치하는 설치 작품들의 특징인 Site-specific 한 전시⁶를 넘어 이곳을 방문하는 소비자들과 구성원들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통해 Consumer-specific / Audience-specific

⁶ 장소 기반 전시의 예로는 테이트 모던, MoMA PS1 등을 들 수 있다. 과거 건축물의 터빈홀을 그대로 유지하며 거대한 공간 속 대형 설치 작품들을 전시하는 테이트 모던 건물이나, 낮고 좁은 벽과 계단에 그려진 낙서 그림, 공간을 향해 들어오는 빛과 인공적 빛을 사용해 관람자에게 특수한 경험을 하게하는 PS1 의 제임스 터렐의 작품 등을 들 수 있다.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한 공공성의 확장으로 읽힐 수 있다(김명옥, 2009).

다만 대부분의 기존 미술관에서의 공공성에 대한 연구들이 관객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면, 현대 문화예술의 공공성은 생산자와 매개자까지를 포괄한 성격으로 진화하려는 노력도 있다. 문화예술 진흥원과 콘텐츠 진흥원의 지원 사업들이나 공공 미술사업, 문화 예술인 4 대보험 지원, 저소득 계층에 대한 문화 바우처 지원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어서 미술관이 도시의 상징적 건축물을 넘어서 실질적인 창조 공간으로 개념적, 기능적 영역을 확대함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 창조도시에 대한 논의로까지 확장되고 있다(Landry and Bianchini 1995; Florida 2002). 즉 미술관을 포괄한 문화예술 관련 정책이 도시 계획, 도시 재생 등의 이슈로 확장되면서 문화 예술이 제공하는 공공성에 더욱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과거 기술/생산 중심의 도시 공간에서 문화 중심, 소통 중심 공간으로 변모하는 도시 개발 과정에 문화 예술 공간이 갖는 공간적/컨텐츠적 특성이 유효함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창조/소통의 도시 중심에 하나의 미술관이 기여할 수 있는 파급효과의 크기가 예상 외로 클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휘트니 미술관 설립과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뉴욕의 다양한 사례 등을 통해 검증된 바 있다.

미술관이 제공하는 도시적, 건축적 위상은 미술관의 본질적 기능, 즉 문화 예술품의 보존과 향유, 문화 소비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도시의 문화 상징이자 사회문화적 기능으로도 작동하고 있다. 국립 박물관이 국가의 역사를 선택과 배제를 통해 재생산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역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귀속감을 증진키시는 국민 교육의 장소로도 기능해 왔다. (아놀드 하우저, 메타몰포시스 개념; 에릭 홉스봄, 만들어진 전통)

이와 유사하게, 국공립 미술관들도 도시에 대한 집합적 기억들을 재구성하고 해당 도시가 추구하는 문화예술적 가치를 선택적으로 재생산함으로써 도시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도시가 도시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공공의 이익이자 관계 맺음의 방식으로 작동해왔다. 특히 도시적 공공성의 결과물인 도시의 이미지라는 측면에서 미술관은 해당 지역 주들, 그리고 나아가 도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여타의 방문객들에게 제공하는 문화/예술적 소통의 장인 것이다. 어떤 소장품을 가지고 어떤 전시를 할 것인가, 미술관의 공간 구성 및 건축은 어떤 의미와 방향성을 가질 것인가의 문제는 곧 그 미술관을 포함하고 있는 도시 정체성의 형성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Asian Art Museum 은 북미에서 가장 큰 아시아 컬렉션을 자랑하며, 동북 아시아, 동남 아시아, 중앙 아시아 등 방대한 의미의 아시아 소장품들을 보유하고 이를 토대로 각기 다른 지역의 아시아 국가들이 얼마나 다른 문화적 전통이 있는지를 전시 기획의 핵심으로 하여 미국이 갖는 아시아에 대한 선입견을 되돌아 보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과 협력하여

동아시아 유물들과 현대 미술 작품들과의 교류점을 찾아 2014 년
Gorgeous 라는 특별전시를 기획하기도 하였다. 이는 곧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가 갖는 아시아의 정체성, 다문화적 성향,
항구도시로서 갖는 문화에 대한 개방성, 현대와 과거를 잇는 전통에
대한 재해석 등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방문객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효율적인 소통의 방식이다.

제 3 장 연구 질문 및 분석틀

2.3 장의 미술관의 공적 기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술관은 다원적 측면에서 다양한 공공성의 요인을 지니고 건축적, 예술적, 도시적 공공성 증진의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러나 미술관이라는 공간이 추구해야 할 공공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때때로 미술관의 공공성은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측면에서 예술의 심미성이나 문화소비와 교육에 국한된 공공성만이 강조되고 있다(주명진 박일호, 2012). 반면 건축적 도시적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음에도 이 역시 건축적 공공성이 도시적 공공성으로 확장되는 경우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예술적 공공성은 이와 연관되어 논의된 적이 드물다. 또한 건축적, 도시적 공공성도 건축적 가치가 도시적으로 확장되는 과정에 초점을 두어 공공성 요인들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드물었다.

본 논문은 이에 앞서 분류한 공공성의 요인과 효과들을 중심으로 도심 미술관의 공공성이 갖는 특성을 건축적, 예술적, 도시적 공공성의 관점에서 확인하고, 미술관을 통해 건축적-예술적-도시적 공공성이 어떻게 연결되어 공적가치들을 만들어내는지 또한 이를 통해 만들어진 공공성의 효과들이 다시 공공성의 요인들로 환원되는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물론 미술관이라는 공간이 제공할 수 있는 공적 가치들은 문화공간이 갖는 특수성에도 기인하지만, 본 논문은 예술적 공공성을 통해 보다 긴밀히 연결되는 건축적, 도시적 공공성에 초점을 두고, 미술관의 장소성, 개방성, 연계성, 전이공간, 다양성, 접근성,

적합성 등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공성의 발생이 보다 다양한 단계에서 각기 다른 요인들의 연결을 통해 만들어짐을 확인함으로써 공공성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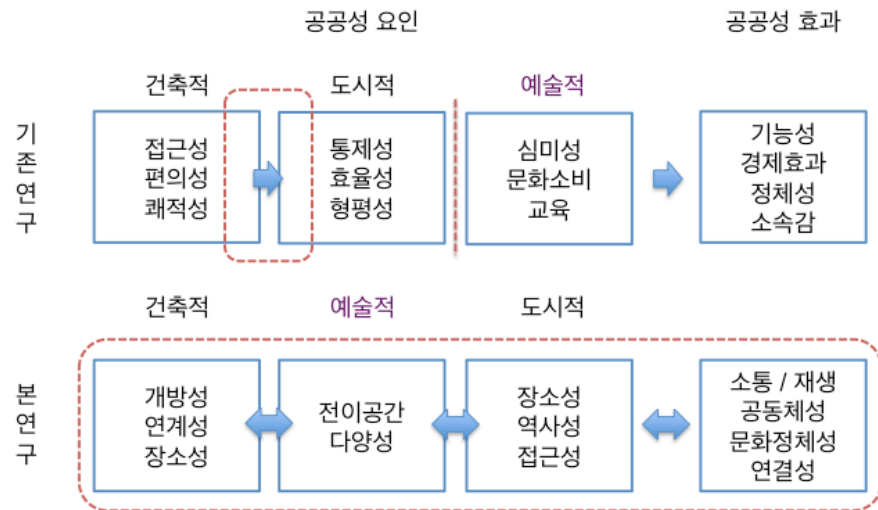


그림 1. 건축적, 예술적, 도시적 공공성 분석 프레임

그림 1 은 공공성의 요인들과 효과의 상호관계를 제시함으로써, 미술관이 건축, 도시적 공공성과 별개로 문화소비, 문화교육을 담당하는 장소만이 아닌 건축적, 도시적 공공성을 연결하고 확대하는 전이공간과 다양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소통, 연결성 등이 다시 공공성을 확대하는 요인들로 환원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본 논문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라는 사례를 통해서, 기존의 랜드마크적 접근방식을 취하지 않은 도심 미술관이 제공하는 장소성,

개방성과 이 공간을 통해 만들어지는 관객과의 소통, 연결, 그리고 문화적 전이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살피며 마지막으로 기존 문화 역사 지도를 잇고, 도시 공간간 연결성을 확대한다는 관점 등 미술관을 통해 생겨나는 각기 다른 공공성의 발현 과정을 질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건축적, 예술적, 도시적 공공성의 요인들 중 일부가 어떻게 서로 연결 될 수 있는지 그 예를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일반적 의미의 공공성 및 건축적, 예술적, 도시적 공공성에 관련된 선행 연구, 사례 관련 정책 기관 보고서, 사례 관련 기사, 현장 답사 및 인터뷰들을 바탕으로 하였다.

제 4 장.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요 및 현황

4.1 서울관 부지의 역사적 배경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공간적/지리적/도시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립현대미술관 부지가 지니고 있는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북촌, 삼청동으로 이어지는 문화벨트의 중심에 놓여 있으며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기무사 부지는 그 역사적 변천에서 만들어진 폐쇄성만큼 서울관의 공간 구성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공간이기도 하다. 서울관이 자리잡은 소격동은 조선시대에는 사간원, 규장각, 종친부가 자리했던 장소이다. 왕권의 정치 균형을 위한 핵심기관이었던 사간원, 국가의 학문적 기반이자 도서관이었던 규장각, 그리고 왕실의 인사담당기관이었던 종친부 등이 있었던 유서깊은 곳이다. 이 중 유일하게 조선시대의 모습을 유지하며 남아 있는 종친부 건물인 경근당과 옥첩당은 1981년 정독도서관으로 이전되었다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과 함께 원래의 위치로 이전 복원되었다. 하지만 1913년 일본군 수도육군병원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1928년 경성의학전문 부속병원이 자리잡고, 1971년 국군 기무사령부의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가 이전하였다. 이와 같은 극적인 변화를 거친 기무사 부지는 그 역사적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이를 보존하고 동시에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외부 공간과 지역의 특성에 걸맞는 미술관을 건립하고자 하였다.

군부독재 정권하에서 기존 병원에 보안사령부가 함께 주둔하게 되며, 군부 정부의 정쟁과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간으로 변하면서 군사 기밀의 보안지원, 방첩활동 및 특정 범죄 수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공간으로 변하게 된다. 이후 과천으로 기무사령부가 이전하기 이전까지 일반 시민에게 공개될 수 없는 폐쇄된 공간이었고 이후에도 높은 담으로 둘러쌓여 주변과 단절된 공간이자 주변을 단절시키는 공간으로 남아있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설계한 건축가 민현준은 한 기고문에서 ‘기무사와 국군병원은 사망한 종친부의 기능을 잠식해 들어간 시설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는 종친부뿐 아니라 이를 파괴한 기무사마저도 등록문화재이다. 다양한 시대의 강자의 파편이 남아 있는 이 한 장소에서 힘의 위계를 정할 수 없다. 종친부의 배치를 살려 솟을대문을 복원하려니 기무사가 막는다. 기무사를 강조하면 종친부가 약해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역사적 맥락을 존중하며 미술관 건축을 계획했던 고민의 흔적을 전한 바 있다. 남아있는 흔적만으로도 가치의 경중을 쉽게 정할 수 없는 옛 기무사 터는 외면할 수 없는 역사적 변천사의 기록이다. 고려시대 도교의 수련과 제사를 담당했던 소격소가 위치한 장소였고, 조선시대에는 사간원, 규장각, 종친부로 이어졌다. 마지막까지 이 터에 자리잡고 있었던 종친부는 1972 년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나 기무사가 들어서며 테니스 코트 조성을 위해 정독도서관으로 이전 복원되었다.

일제시대인 1913 년 일본군 수도육군병원이 건립되었으며, 1928 년 5 월부터 해방전까지는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의원으로 기능했다. 해방 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제 2 부속 병원으로 이용되었고, 6.25 때 군 병원시설로 이용되다 전쟁이 끝난 이후 육군 시설로 이용되어왔다.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령부가 이 자리에 들어선 건 1971 년부터이다. 높은 담장의 폐쇄적이고 단절된 기무사의 이미지는 2001 년 기무사 이전 논의가 가시화되며,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단계를 거쳤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기무사 부지를 미술관으로 계획하겠다는 발표를 하며 본격적으로 활용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시작되었다.

4.2 국립현대미술관의 역사적 배경

2013 년 11 월 서울 삼청로에 문을 연 국립현대 미술관 서울관은 덕수궁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본관에 이은 세번째 국립현대미술관이며, 청주에 KT&G 건물을 리모델링해 지어질 4 번째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까지 통틀어 전체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로 주목받아왔다. 먼저 국립현대미술관의 변천을 간략히 살펴보면 표 4 과 같다.

표 4. 국립 현대 미술관 연혁 및 건축 세부사

경복궁 내 국립현대미술관	-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 번지
	- 기간: 1969 년 10 월 20 일 ~ 1973 년 7 월 4 일
	- 준공일자 : 1969 년 10 월 20 일
	- 면적: 건물 연면적 3,475 m ²
덕수궁 석조전 국립현대미술관	-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5 번지
	- 기간: 1973 년 7 월 5 일 ~ 1986 년 8 월 24 일
	- 준공일자: 동관 1900 - 1909 / 서관 1936 - 1938
	- 면적: 건물연면적 7,518 m ²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본관	- 위치: 경기 과천시 막계동 58-1
	- 기간: 1986 년 8 월 25 일
	- 면적: 건물연면적 34,006 m ²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 위치: 서울 삼청로 30 번지 (구 기무사 서울지구병원 부지)
	- 기간: 2013 년 11 월 13 일
	- 면적: 건물연면적 51,225 m ²

우리나라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은 1960년대 말 세계적으로 현대미술이 가장 왕성히 발전하고 있을 때 처음 설립되었다. 1969년 제 18회 대한민국 전람회(국전)의 개막과 동시에 개관한 국립현대미술관은 당시 중앙박물관을 제외하고 근대 또는 전통 미술에 대한 미술관이 전무하던 시기에 “현대”미술을 그 기점으로 삼으며, 다른 국가의 미술관들과는 달리 미술관련 실무진 없이 철저히 관료적 관점에서 시작한 미술관이었다.

자본이 국가의 재정으로 지원되고 나머지 운영은 철저히 자립적인 재단 또는 미술 실무진으로 운영되는 서유럽이나 북미의 미술관들과는 사뭇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건립 후 2000 년도에 이르기 까지 대중에 대한 접근성도 상대적으로 낮고, 정부 통제를 받는 행정 조직적 성향이 강해 현대 미술이 갖는 개방성과 자율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미디어 리서치 2008).

“초기의 국립현대미술관은 본격적인 의미의 미술관이라기보다는 전시관으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졌다. 또 문화 공보부 소속으로 출발하였다는 것은 문화기관으로 보다는 공보기관의 성격이 짙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소장작품이나 전문직원, 시설 등 미술박물관으로서 필수 조건이 결여된 채 출발하였으며 관장도 1981 년까지는 행정직 관장이 임명되었다(장엽, 2009) “

이는 단지 덕수궁 시절 초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본관이 설립된 이후에도 정권이 바뀌거나 장관이 바뀔 때마다 따라 변하는 계획들에 대한 비판이 관장들로부터 나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기능적 제약을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분화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현대미술관들을 분류하고 “예술”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미술관을 설립한다는 것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궁극적인 목표였다.

4.3 서울관의 계획 및 설계

4.3.1 서울관 계획 및 설립 목적

2004 년부터 공론화 되기 시작한 국립현대 미술관 서울관의 건립은 2005 년부터 미술계의 주장으로 기무사터에 대한 서울관 건립의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후 이를 활용한 다양한 설계안과 전시 등이 기획되었고, 2008 년까지 지방 분권정책등을 이유로 서울관 건립이 미루어져 오다가, 2009 년 이명박 정권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기무사 부지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조성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구체화 되었다. 기존 미술관에서 다루지 못했던 컨템포러리 미술을 담기 위한 새로운 공간이자, 서울과 한국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국제 교류의 중심지로 주목받기를 기대하기도 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다.(정책연구원 , 2013)

표 5. 서울관의 설립목적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 시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시대의 변화, 문화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
성격과 기능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시각 예술분야에서 표현영역을 확대하는 실험적인 창작활동과 새로운 접근과 해석을 추구하는 작업들을 지원하고, 전문 예술인들의 발굴 지원 뿐 아니라 시민들의 시각 문화 이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문화 교육 기능을 수행

입지여건	국립현대 미술관 서울관은 국가 상징 거리 조성, 경복궁 개발, 북촌지구 개발과 연계하여 주변시설과 경관 및 환경 보존에 조화를 이루는 문화예술시설로 건립
국제교류확대	세계의 주요 문화 예술기관과 전문가들이 대화를 나누며 협력하고, 한국의 작가들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발판을 제공
기대효과	문화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생활에 기여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립현대 미술관은 단지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의 부족한 기능을 보조하는 서울 분관이 아닌 최초의 컨템포러리 미술관으로서 국가상징 문화거리 조성, 경복궁 개발, 북촌 개발 등 삼청동 일대의 문화벨트 융성, 사간동과 삼청동의 미술벨트 확장 등 도시적, 지역적 관점의 거시적 목적을 담고 시작되었다. 서울관의 외부적 목표와 목적이 미술관만으로서가 아닌 상징적 문화공간으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면, 서울관의 건립 기본 방향은 기존의 덕수궁 분관, 과천 본관의 기능과 초점들을 재정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기본적인 건립 방향으로 1) 국립현대 미술관 본관의 기능 강화와 2) 국립현대 미술관 활동 영역의 확장을 토대로 새로운 실험과 경향을 수용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확보하고 문화 생산, 유통,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하였으며, 다양하고 복합적인 시각문화의 맥락 안에서 확장된 개념의 예술을 제안하고 전파하며

새로운 예술의 범주를 수용하여 새로운 문화자원 구성과 산업화를 위한 문화 표현의 열린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이 그 취지였다. 아래의 표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과천 본관, 덕수궁 분관의 목적 및 기능을 서울관 설립에 따라 재정리한 결과로, 과거 전시중심의 현대미술관에서 보다 체계적인 기능을 갖춘 미술관 집합으로 변모해 나감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6. 국립현대 미술관 서울관, 과천본관, 덕수궁 분관 기능 재정립

구 분	서울관	과천관	덕수궁 분관
건립목적	현대미술의 국제교류 공간 새로운 미술경향을 선도하는 전시	국가대표 미술관 전시, 소장, 연구, 교육을 통한 미술문화 발전	한국근대미술 전시, 연구 공간, 서구근대미술 소개
장르	순수미술, 영상, 디자인, 공예 뉴미디어아트, 설치, 복합장르	순수미술, 사진, 건축, 섬유, 공예	순수미술
기능	기획전시, 특별전시, 교육, 연구, 아카이브	상설전시, 특별전시, 교육, 연구, 보존과학, 수장고, 도서관	상설전시, 특별전시, 교육
전시	첨단미술실험 수용 국제교류 큐레이터 초청기	국내외 미술 소장품 상설전시 대규모 근현대 미술 기획전	한국근대미술소장품 한국근대사회, 역사, 문화재조명, 근대문화 재발견

교육	과학, 인문학,		
	미디어 등 미술과	시각예술에 대한	
	연계된 교육 /	기초적인	한국, 동양, 서양,
	시각문화 수용능력	이해(일반인),	근현대미술 교육
	교육 / 첨단 미술,	전문가 교육연수,	
	디자인, 미디어아트	교육자 재교육	
	워크숍		
컬렉션	기능수행 (수장은	기능수행	
	과천관)	보존, 복원기능 강화	
	임시 수장고 확보	국가대표 미술	임시수장고 확보
	아트뱅크 기능 보조	수장고	
		아트뱅크기능 보조	
시기	2001 년 이후 현대	해방이후 ~ 2000 년	19 세기 후반 ~ 해방
주 관객	미술애호가,	미술전문가,	
	문화예술전문가,	교육자, 큐레이터,	일반인, 학생
	컬렉터,	연구자, 미술애호가	
	외국관광객, 청년		

또한 미술관 별 주요 대상 관객의 범주를 명확히 함으로써 각 공간의 예상 관객 및 수요를 보다 현실적으로 강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중심 장르에 대한 명확한 경계는 곧 서울관 설계의 기본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하였다. 즉 서울관은 기능적으로 다학제적 교육 및 첨단 미술, 미디어아트 등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과 컨템포러리 미술(영상, 디자인, 공예, 뉴미디어아트, 설치, 복합장르)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 또한 예술품 대여를

주요하는 아트뱅크의 기능을 과천에서 서울관으로 옮겨오면서, 보다 적극적인 문화예술 전파의 중심공간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능적 위상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4.3.2 서울관 기본 설계 및 공간 배치

서울관은 2009 년부터 2012 년까지 약 3 년의 공사를 걸쳐, 부지 27264m², 전체 면적 5 만 2125m² 지하 3 층 지상 3 층 규모로 건립되었다. 전체 총 8 개의 전시공간, 3,825m² 의 수장공간, 문화공간과 교육공간, 자료공간,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전면의 구 기무사 건물과 새로 지어진 현대식 건물들, 그리고 후면에 자리잡은 전통 한옥 종친부 건물들이 함께 자리잡고 있다. 즉 1700 년대, 1900 년대, 2000 년대의 건축물들이 한 데 어우러져 서울관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림 2. 서울관 부지도

서울관의 건축적 특징을 간단히 요약하면, 물리적인 외관의 존재감을 최소화한 점과 건물들 사이로 비워둔 외부공간, 외부공간을 에워싸듯 주변 풍경을 차경하는 사이공간, 도시 가로를 향해 열어둔 여러 개의 입구 그리고 무겁고 어두운 기억을 지우듯 철거된 담장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각각의 건물이 섬처럼 따로 놓여있는 배치도는 건물의 외관이 갖는 무게감을 최대한 덜어내고 여백이 만들어내는 장소성을 부각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서울관이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된 이유는 서울관이 담보해야 할 기능적 요소를 반영한 설계의 묘이기도 하겠지만, 경복궁 옆이라는 지리적 위치때문에 고려하고 배려해야 할 요소가 많았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문화행정법 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건축물의 높이가 12m 로 제한되는 이유로 나지막히 자리잡은 서울관의 지상에는 유동인구의 편의시설, 미술관의 출입구, 아트숍 등이 전면 배치되어 있으며, 전시장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앞서 설명한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건물들의 유기적인 하모니를 위하여 건물들의 사이, 외부공간에 중요한 의미와 기능을 부여하며 다양한 성격을 가진 마당을 만들었다. 서울관에서의 마당은 인근한 지역을 향해 열린 태도를 취하며, 관람객이 아니어도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길의 일부로 기능한다. 이는 곧 다양한 건물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어느 곳에서도 미술관 내부로 드러설 수 있고, 또 금방 벗어날 수 있다. 마당에는 이우환, 알렉산더 칼더, 엄태정, 김승영 등의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마당을 중심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건물은 배경이 되는 방식을 취했다. 일정한 면적과 볼륨을 요구하는 전시 및 교육을 위한 장소를 만들면서도 마당을 중심으로 하여 건물은 선형 배치가 아니라 군도형으로 자리잡는 방식을 택했다. 전시장은 대부분의 미술관이 가진 2 차원적 흰벽으로 구성된 화이트 큐브가 아니라 3 차원 흰 볼륨을 구축하며 진화된 화이트 큐브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화이트 큐브는 지하에 배치되고 지상에서는 마당을 중심에 두고 좌우로 물러나는 형상을 취하며, 역사적으로는 숙천제아도에 드러난 종친부의 배치도를 다시 구현하려 하였고 도시 맥락적으로는 경복궁과 주변 북촌 일대의 풍경을 미술관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지상에 드러난 볼륨을 가진 공간도 미술관 관람여부와 상관없이 출입이 자유로운 도서관, 뮤지엄샵, 교육관, 식당, 카페 등을 배치해 비워 둔 마당과 더불어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용하며 주인이 되도록 했다. 기존의 상징적인 외관, 정해진 관람동선, 강요된 프로그램 등에 익숙해진 관람 문화와는 확연히 다른 이러한 배치계획은 미술관 건물의 외피를 둘러싼 재료 선택, 비워둔 공간 사이 섬처럼 자리잡은 매스들 사이의 적절한 거리감 등으로 관람객들이 마치 작은 도시를 누비듯 공간 체험의 다양성을 확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건물의 외장재료로는 테라코타, 씨블랙, 반투명유리가 지배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재료들은 주변 풍경 및 기존의 건물 재료와 비슷한 느낌을 자아내며 매스감을 확대하기 보다 중성적인 존재감으로 자리잡는 것을 도왔다.

4.4 서울관 주변 지역 개관

서울관은 조선시대의 정궁인 경복궁을 마주하고 북쪽으로는 삼청동 서쪽으로는 북촌한옥마을과 이웃해 있다. 남쪽 도심을 향해서는 광화문 및 서울광장, 서울역사박물관 등과 인접해있다. 서울시를 대표하는 관광지가 된 이들 지역의 특징은 도시가 걸어온 600 여 년의 멀고 가까운 역사를 함축하고 있으면서, 도시의 요구에 반응하며 매일 새롭게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4.4.1 종로구의 문화지구적 특성

서울관은 조선시대의 정궁인 경복궁을 마주하고 북쪽으로는 삼청동 서쪽으로는 북촌한옥마을과 이웃해있다. 남쪽 도심을 향해서는 광화문 및 서울광장, 서울역사박물관 등과 인접해있다. 서울시를 대표하는 관광지가 된 이들 지역의 특징은 이 도시가 걸어온 600 년의 멀고 가까운 역사를 함축하고 있으면서, 도시의 요구에 반응하며 매일 새롭게 변화가 진행중이라는 점이다.

기존의 서울시 권역에 대한 관광개발 계획의 하나인 “서울근교권 관광개발 계획(1992)”에서는 서울시 도시 관광자원을 도시공원, 녹지, 문화시설, 문화의 거리, 문화재, 축제 및 이벤트, 주제공원, 쇼핑시설, 호텔, 체육시설 등 10 개 평가항목으로 분석 평가하고 있다. 먼저 종로구는 문화자원면에서 1 위, 자연자원면에서 2 위, 인위적 시설면에서도 5 위로 관광잠재력 1 등급을 보이고 있다. 중구와

강남구도 관광잠재력으로는 동일한 1 등급이지만, 인위적 시설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기무사 부지가 있는 종로구는 문화자원면에서 우수한 지역임과 동시에 새로운 문화시설의 부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확인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문화자원은 북촌 한옥마을이다. 서울시는 북촌을 서울시의 대표적인 관광자원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2007 년부터 북촌의 전통 문화활동 지원을 계획, 추진해왔으며 문화재청도 2006 년부터 서울 역사도시 선정과 연계 북촌 한옥마을 정비와 보전 계획을 추진해 왔다. 2007 년 1 월 17 일 도시 계획위원회를 통해 북촌 한옥마을 일대를 역사 문화 지구로 변경하여 지정하였다. 기존 계획에서 제외되었던 기무사와 예전 미대사관 숙소, 현대 사옥 부지 등이 새로 포함되면서 면적이 4 만평 이상으로 늘어 서울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지구로 자리를 잡아가게 될 것이 예상된다.

서울관과 마주하고 있는 경복궁은 조선 건국 4 년째인 1395 년에 세워진 조선시대의 궁궐로, 일제 치하에 파괴된 궁궐의 원형을 복원, 복구 하는 사업이 1990 - 2009 년까지 20 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복원의 기준 연도는 최종 경복궁 완공 시점인 1888 년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정부수립 후 중앙청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되던 총독부 건물은 1995 년 철거되었다. 2009 년까지 총 129 동의 건물이 복원되었으나 이는 전체 330 동의 40%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단지 역사적 재건의 의미도 있지만 국립현대 서울관의 부지가 곧 과거 왕조 시대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근지역에는 먼저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궁궐, 공원, 박물관 등이 자리하고 있고, 상업적으로 오래된 국제 갤러리, 현대 갤러리, 예맥화랑 등이 있다. 또한 문화관광부가 바로 경복궁 앞에 자리하고 있어 심리적 연계성이 크다고 하겠다. 기무사 부지 주위의 문화 시설들과 역사적 건물들은 향후 계획으로 문화예술의 상호연계,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이 가능해 북촌을 문화거리로 만들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고 있다.

4.4.2 관광 상업공간으로서의 확장

문화 기반 시설, 역사 문화지구로서의 경복궁 일대의 발전방향이 일관되게 진행되었던 것과 달리 국립현대미술관이 접하고 있는 또 다른 축인 삼청동 일대는 상대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흔히 “삼청동”이라 불리우는 이 일대의 행정적 구분은 삼청동, 팔판동, 안국동, 소격동, 화동, 사간동, 송현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960년대 박정희 정권시절 감사원이 들어서고 삼청동길이 아스팔트로 포장되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을 띄기 시작하였다.

삼청동의 문화기반은 1968년 프랑스 문화원의 설립을 시작으로 1975년 현대화랑의 이전, 1982년 국제화랑 개관, 1992년 금호미술관의 이전, 학고재와 금산갤러리 등 주요 갤러리 또는 미술관 등의 개관/이전을 통해 1990-2000년대 문화 공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 아트선재센터의 오픈과 신생

미술관인 사비나 미술관 등 20-30 여 개의 새로운 갤러리가 추가로 생겨났다.

이러한 문화 공간들의 등장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삼청동을 대표하던 음식점들인 삼청동 수제비, 용수산, 서울에서 두 번째로 잘하는 집 등과는 달리, 이탈리아 수와래, 프렌치 로마네꼥티, 차이니즈 쿠얼라이 등의 바와 음식점들이 생겨나면서 예술문화 지역에서 복합문화지역으로, 즉 문화계 사람들이 찾는 식당이 아닌, 음식점을 찾는 사람들이 문화공간을 들여보는 공간으로 그 성향이 조금씩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 지역의 상업화를 가속화한 부분은 보세/컬렉트 샵의 등장과 와플&아이스크림 등 거리 문화의 대표적 소비상품들이 나타나면서, 삼청동길의 사람들은 문화계 종사자에서, 맛집/데이트 코스를 찾아다니는 일반인들로 바뀌어가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각기 다른 성격의 지역들을 연결하며, 역사, 문화, 관광시설들이 복합된 중심에서 문화예술의 이슈를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해내고 관람객과 비관람객의 차이없이 이를 즐기며, 각기 다른 문화를 흡수하고 또 관조하는 장소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기능적으로 문화향유자들의 체류시간을 확대하고, 상품을 소비하지 않더라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휴식과 재충전이 가능한 여러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도심 문화지구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본다.

제 5 장.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공공성 분석

앞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미술관적 변천과 기무사 부지의 역사적 변화, 그리고 서울관을 둘러싼 삼청동 일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서울관이 왜 도시적/예술적 공공성에서 중요한 사례인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설립계획 당시부터 도시적, 예술적 공공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충분히 고려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제시하며 만들어졌음 알 수 있다. 이러한 설립목적 및 설계방향이 실제 건축적 공간에 얼마나 반영되었고 그로 인한 공공성의 증진은 얼마나 가능했는지는 다분히 분석적인 질문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건축적 공공성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적 특성들을 정리하고 이러한 특징이 예술적 / 도시적 공공성의 확대에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특히 물리적, 건축적 공간이 공간의 소비자들인 방문자들과 문화예술인들, 그리고 주변 문화 예술 지역에 제공하는 공공성의 관계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서울관이 제공하는 건축적 공공성과 문화예술적 공공성이 어떻게 서울관을 둘러싼 상징적 지도를 재편하고 서울이라는 도시가 제공하는 공공재로서 작동하는지, 그로 인해 서울이라는 도시는 어떠한 또 하나의 얼굴을 갖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5.1 건축적 공공성

2014 년 10 월 한국건축문화 대상을 수상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대하여 심사위원단은 “서울관은 지리적 여건과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 건축물로 무형의 미술관, 일상 속의 미술관, 친환경 미술관을 지향하며, 6 개의 마당 주위에 건물을 배치해 건물 내외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심 속에서 다층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라고 선정이유를 밝힌 바 있다. 서울관의 건축 설계는 기존의 도심 미술관들이나 공공건축물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띄고 있다. 건축가 민현준과의 인터뷰에서도 강조된 것처럼, 서울관은 “관계의 미학”을 구현한 건축이다(이미혜, 2013). 여기서 관계란 기무사 건물, 종친부 건물, 새로 지어진 미술관 건물들을 잇는 관계이자, 삼청동, 사간동, 북촌, 경복궁을 잇는 통로이며, 정부, 미술계, 관광자원을 잇는 서울의 얼굴을 만들어내는 관계이기도 한 것이다. 기존의 도심 미술관들이나 공공 건축물들이 랜드마크적 접근을 통해 규모와 외형적 가시성에 초점을 두고 장소와 지역의 맥락과는 동떨어진 건물들을 만들어 내던 현실과는 상당히 다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유명 평론가이자 팔레 드 도쿄의 디렉터인 니콜라 브리오가 말하는 '관계의 미학'의 관점을 빌면 서울관은 “무형의 미술관(Shapelessness)”에서 “의미로 가득찬(meaning-full)” 공간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여기서는 서울관의 건축적 공공성을 장소성, 개방성, 연계성을 중심으로 재정리 하고자 한다.

1) 장소성: 서울관은 미술관이라는 기능적 의미를 내세우기 전 그 장소의 가치가 중요한 건축이다. 건축주이자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을 책임지는 윤남순 단장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화려한 아름다움을 내세우는 건물은 아니다. 오히려 중세와 근대, 현대가 공존하는 장소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가 크고 그 의미를 잘 회복시켜준 건물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라고 서울관의 역사적 장소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관은 종친부라는 조선시대의 기억과 경성의전이라는 근대의 기록, 국군병원이자 기무사라는 현대의 흔적까지 오롯이 지닌 드문 장소이기도 하다. 앞서 설명한 기무사 부지는 특히 서울관이 들어서기 이전까지는 폐쇄된 공간으로 주변과 단절된 곳으로 남아있었다. 서울관의 등장은 역사적으로 지워져있던 장소를 역사적, 현대적,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공간으로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종친부, 기무사, 현대미술관이라는 장소들의 가치를 하나로 연결하여 지워졌던 장소성을 다시 부여할 수 있었던 것은 건물보다 비워진 마당을 강조하는 건축적 접근 방식에 기반하고 있다. 기존의 종친부, 기무사 건물을 보존, 리모델링 하면서 이와 어울릴 수 있는 현대 미술관의 외형을 선택함으로써 과거 역사의 흐름속에 각기 다른 시대의 장소들을 하나로 묶어내는데 성공한 것이다. 건축가 민현준은 서울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미술관의 형상이 아닌 서울의 역사적 중심부에 위치한 미술관의 장소성'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림 3, 4, 5 는 각각 종친부 건물과 기무사 건물, 그리고 현대 미술관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장소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서울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느 관점에서 바라 보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서울관의 모습은 기존의 도심 미술관들이 그 외관으로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고자 했던 태도와 달리 얼굴을 감추고 그 장소를 드러내는 태도로 오히려 많은 의미와 가능성을 담아내고 있다.



그림 3. 진입로에서 바라본 종친부



그림 4. 삼청로에서 바라본 현대미술관, 종친부, 기무사 건물



그림 5. 구 기무사 건물의 흔적을 남긴 외관

특히 건물이 부각되지 않으면서 강조되는 장소성은 오히려 서울관의 미술관으로서의 기능적 특성에 강한 장점을 부여하였다. 즉 어떤 전시를 기획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장소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문화예술 기획자 또는 예술가들에게도 현장성 있는 작품들을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며, 건축의 외적 특성이 두드러지지 않는 서울관의 경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야외 설치 작품이나 종친부, 구 기무사 건물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 마당에서의 설치 작업 등 외부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전시 기획이 더욱 주목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누구나 오가면서 한 번쯤 발걸음을 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미술관, 미술 분야별로 다양하게 전시를 확대해 열린 미술관으로 운영하며, 매우 복잡하고 거대해진 현대미술을 품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전시공간인 만큼 역량 있는 작가들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으로 만들겠다." 는 윤남순 국립현대미술관 단장의 이야기에서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2) 개방성, 연계성: 앞서 강조된 장소성에 대한 개념, 즉 미술관의 형상이 아닌 서울의 역사적 중심부에 위치한 미술관의 장소성은 실질적인 건축의 형태와 배치를 통해 구현되었다. '주변의 도시적 맥락을 강조하기 위해 형태는 가능한 절제되고, 마당이라는 가변적이고 사용자 중심적인 빈 공간을 만들어 전시, 도시, 역사, 이웃을 중재하는 매개물이 되도록 한다'라는 건축가의 설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하는 서울관의 공간은 마당과 지하 전시공간이다.

마당 - 서울관의 공간 배치에 있어서의 특징은 외관이 두드러지는 랜드마크적 건물보다는 기무사, 종친부, 현대미술관, 교육관 등 건물들을 이으면서 자연히 생기는 다양한 성격을 가진 외부공간에 있다. 서울관을 설계한 건축가는 이를 마당이라고 칭하고 그 기본 개념을 조선시대 화첩인 숙천제야도(그림 6) 에서 가져왔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건축을 둘러싼 여백의 통로 또는 공간이 건축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과 달리 건축가는 마당이 곧 건축이라는 배경을 규정하는 중요한 Figure 라고 강조할 만큼 마당의 기능을 강조하였다 (민현준, 2013).



그림 6. 숙천제야도, 중앙박물관, 조선 후기 관리였던 한필교가 자신이 근무했던 관청과 주변 마을 풍경을 그림으로 기록해 이와 관련한 15 점의 그림이 담긴 화첩으로, 서울관이 배경으로 삼은 그림은 기무사 이전에 종친부 시절의 전통형식을 가져온 것이다.

서울관의 마당은 단지 유희공간이 아니라 적극적인 전시 공간으로 활용됨과 동시에 4 가지 다른 성격의 공간을 잇는 통로이자 출입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마당은 교육관(도서관), 종친부, 기무사건물, 지하로 이어지는 현대미술관이라는 4 개의 공간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내부의 마당과 건물들을 둘러싼 외부의 마당을 연결하는 건물간 출입구는 총 9 개가 존재한다. 건축의 공공성은 “통로”와 “구역”을 중심으로 발현된다고 보는 관점은, 건축의 공공성이 공간의 기능적 연계와 소통을 통해 공공성을 증진시키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이효창, 2008). 서울관에서 마당은 단지 9 개의 출입구를 이어주는 대지로서뿐 아니라 서울관의 건축적 정체성과 이 공간을 사용하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통로로서의 마당과 9 개의 출입구는 관람객들과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로든 외부의 공간들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성을 지닌다. 특히 서울관의 공간이 단지 건물들간의 연결 뿐 아니라, 지하와 기무사 지층, 그리고 종친부 지층이라는 3 가지 각기 다른 레벨의 지층을 연결함으로써 생겨나는 공간간의 통로와 동선의 확장은 비단 건물 내부적 기능의 연계 뿐 아니라 주변 지역간의 연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공통된 지역적 공공성의 인지를 확장하는 주된 기능을 할 수 있다. 즉 미술관이 외부로 열려 있어 단지 개방적 형태를 띠는 것만이 아닌 한 공간과 다른 공간을 연결하는 연계성을 통해 건축적 공공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삼청동길, 북촌로, 을곡로로 이어진 통로들은 관광지, 갤러리 및 미술 거리, 식당 등 상업 지역이라는 각기 다른 성격의 공간들을 이어줌으로써 보다 다양한 관람객들을 받아들이고 다른 공간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7 과 8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마당은 단지 건물들을 연결할 뿐 아니라, 위락 시설과 상업시설들을 각기 다른 공간에 위치시킴으로써 다양한 사람들이 단지 미술관 관람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쉽게 방문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성과 연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시공간 - 옛 건물이 가지는 고답함과 현대적 전시장이 가져야 할 기능적인 부분의 상충이라는 숙제는 지상과 지하의 영역을 나누고 지상에서 마당이라 부르는 외부공간과 종친부의 이축을 통해 전통적인 부분을 재현하며, 커다란 박스로서 지하에 자리잡은 각 공간을 통해 미술관의 전시 및 교육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12m 의 높이 제한을 오히려 건축적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다양한 크기의 공간을 갖는 미술관을 만들기 위해 최고 레벨에 공공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고 그 아래로 확장된 공간을 만들었다. 결국 최상층에 만들어진 거대한 열린 공간은 하늘과 주변으로 열린 여러 행위의 배경이 되고, 그 하부로는 다양한 예술이 전시되는 것이다. 전시 공간을 형태적으로 강조하기보다 지하로 물러나며 지상에 들어선 마당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머물고 드나들며 미술관 전시장이 아니어도 미술관으로 동선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 설치작업이 가능한 장소로 기능하게 된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외형적으로 낮은 건물들이 마당을 끼고 여러 동으로 연결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는 많은 현대미술관이나 복합 전시장이 랜드마크적 성격을 띤 대형 건물이 주는 숭고미 (Sublime) 에 여전히 집착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접근 방식이다.

특히 상층부의 마당을 통해 섬처럼 연결된 공간들과 유사하게 지하층의 전시공간들도 중앙 통로와 전시관들간의 동선이 획일적이거나 규격화되지 않고 관람객의 선택에 따라 다른 템포의 관람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는 언제든 앞서 설명한 9 개의

외부 공간을 활용한 전시와 미술관과 거리의 경계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미술관 관람객층뿐 아니라 해당 공간을 지나가는 관광객, 유동 인구 모두에게 문화적 자극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특히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가지고 있는 많은 통로는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외부가 닫힌 기존의 미술관들과는 다르게 삼청동길과 북촌 길의 레벨로부터 연장한 2 개의 지층의 사이를 투명하게 해 사람들에게 보다 열린 미술관의 느낌을 주고 있다. 전면에 지상에서 직접 연결되는 대형 전시실의 진입부를 넓게 만들어 자연스러운 진입을 유도하고, 층과 층을 이어주는

보이드와 섬세한 프로그램의 배치로 도시와 미술관의 소통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설계함으로써 건축적 공공성의 개방성과 연계성을 증진시키고 있다.

서울관을 설계한 건축가 민현준은 "군부대가 막고있던 골목길을 뚫어주고 싶었다. 도시의 동맥경화를 치료하고 싶었다. 또한 입장권을 사지 않고도 접근이 가능하고 미술에 문외한이어도 마음놓고 드나들 수 있는 공간, 순서와 질서가 중시되기 보다 마음가는 대로 자유롭게 관람하기를 바랐다." 고 밝힌 바 있다.

5.2 예술적 공공성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건축적 공공성을 기반으로 미술관 본연의 기능인 전시와 문화 교육을 통하여 대중들에게 예술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건축적 공공성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마당, 열린공간과 군도형 전시공간의 형태적 특성이 함께 작용하면서 예술적 공공성에서도 기존의 미술관들에서 강조되어 오던 심미성, 예술품 보존, 교육적 측면 등의 전통적인 미술관이 제공하는 공익적 요소들과 함께 관람객의 확장(다양성)과 전이공간으로서 주변 미술계 인프라를 연결하는 역할까지도 강조되고 있다. 이는 군도형 미술관이 “순수예술의 질을 떨어트리지 않으면서도 대중적으로 접근을 확장시키는 형태의 하나”라는 피터 젠킨스의 주장처럼, 각각의 독립된 전시공간과 마당들은 맥락과 위계를 벗어나 좀 더 쉬운 전시를

표방함으로써 현대미술의 다양한 면을 보여줄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좋은 예로, 2014 년 8 ~ 10 월 서울관 잔디마당에서 전시되었던 Yap (Young Architect Project)의 첫 작업으로 선정된 문지방이라는 팀의 ‘신선놀음’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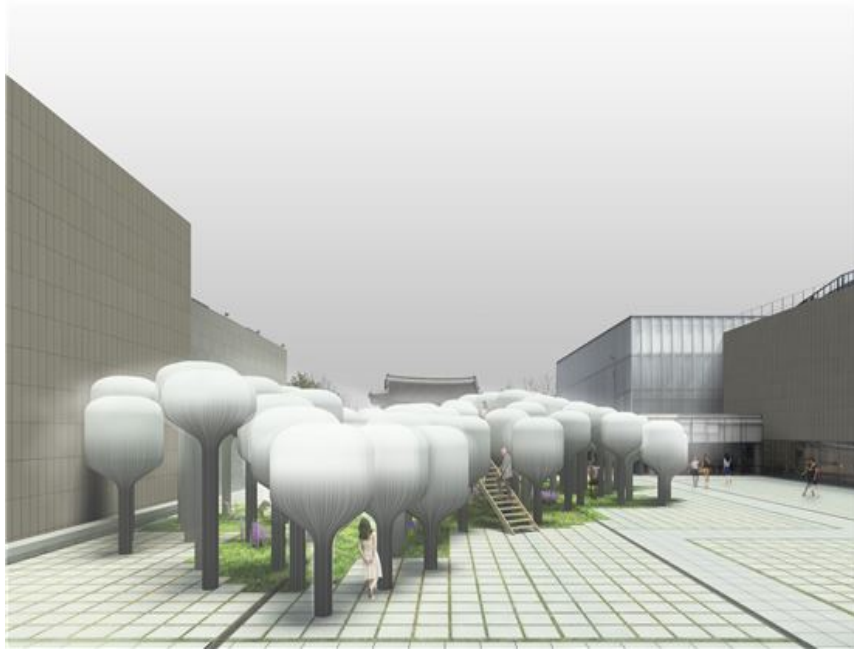


그림 10-1. 신선놀음, 문지방, YAP 2014 Seoul

이 작품은 서울관 잔디마당에 생긴 구조물이다. 건축과 설치 미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미술관과 외부 길의 경계를 허물고 자연스러운 참여가 가능하도록 동선을 이끈다. 이 작품의 출발은 종친부라는 도시에서 다소 생소해 보이는 옛 건물이 이 도시에서 어떻게 읽힐지에 관한 고민을 담고 있으며, 동시에 이를 단순히 종친부가 놓인 자리만이 아니라 서울관에서 바라보는 인왕산과 경복궁을 함께 끌어안은

역사적이고 도시적 차원의 해석을 담고 있다. 이는 서울관의 건물이 비껴나고 물러서고 지하로 내려앉으며 도시와 역사적 전통을 향해 길을 열어두고 빈 공간을 만들어 두려는 태도 덕분에 가능했다.



그림 10-2. 신선놀음, 문지방, YAP 2014 Seoul

신선놀음이 예술적 공공성의 확장에 기여한다고 보는 이유는 단지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가치만이 아니라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작품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관람객과 방문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가치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예술적 공공성은 기존에 만들어진 가치있는 작품을 얼마나 많은 대중들에게 전달하는가로 보는 견해가 많았다. 이에 따라 일부 예술적 공공성이 상류계층의 취향의 전파와 재강화로 보는 부정적 견해들도 존재했다(Zolberg, 1986).

그러나 서울관은 신선놀음이라는 열린공간 마당, 젊은 작가들의 실험적인 작품, 체험적 관람 형태라는 요인들을 통해서

현대미술이라는 맥락에서 벗어나 관객들이 다양한 형태로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관람객들이 거대한 버섯모양 혹은 구름 같은 하얀 에어벌룬들 사이를 걸어 다니며 여기저기서 뿜어져 나오는 물안개 속에서 잔디를 밟거나, 에어벌룬 사이에 설치된 나무 구조물로 올라가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체험을 하는 쉼터인 신선놀음은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한 현대적 공공성의 참여와 소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일 것이다. 다음은 신선놀음이 기존의 미술관 방문객이 아닌 사람들에게 어떻게 읽히고 경험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사이다.

“한여름 땡볕 아래 길을 걷던 사람들은 공기풍선이 일제히 흔들리는 장면에 이끌려 잔디광장으로 들어선다. 풍선 사이로 번져있는 물안개가 도심의 열기를 식힌다. 풍선 사이로 숨어 있는 나무 계단을 올라가 보니 새로운 풍경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앞으로는 경복궁, 뒤로는 종친부가 보이고 발 아래 풍선들이 구름 위에 선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 경복궁과 인왕산은 구름 위에 올라앉은 듯한 자태로 눈앞에 펼쳐졌다. 30도 넘는 무더위가 땡위를 떨치던 지난달 31일 이곳을 찾은 직장인 이우정(30)씨는 “잠시 땡볕을 피하려고 들어갔는데 잔디를 밟자마자 물안개 깔린 구름 안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2014. 8. 12. 조선일보, 뉴미디어 콘텐츠 팀)

단지 신선놀음뿐 아니라 서울관의 전시관들에서 열리는 작품들은 작품들간의 미술사적 관계를 관람객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이는 전시장의 독립된 공간 배치에서 오는 인지적 효과인 것이다. 스스로

'나는 전시공간이다'라고 외치지 않는 전시관들을 통해 서울관은 상업 지역과 관광지역, 문화 공간들을 잇는 전이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이공간의 역할은 단지 지리적 연결과 대중의 확장뿐 아니라 문화계의 지형도를 변화하는 데에도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미술관이라는 문화예술공간은 작가, 관람객, 컬렉터, 학예사, 뮤지엄 샵 운영자, 여가 및 휴식 시설 운영자 등 다양한 주체가 미술관의 물리적, 상징적 공간에서 소통하는 장이 되어준다. 특히 서울관처럼 국립미술관으로서 서울이라는 수도, 경복궁 일대라는 문화벨트에 위치하고 있는 미술관의 위상은 단지 하나의 문화공간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가까이는 주변 문화예술 공간들에 제공하는 공익적 측면에서부터 참여 주체들에 제공하는 공공의 관계적 측면까지 그 기대효과는 다면적이다.

서울관은 현재 가장 주목받는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 전시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작가들이 국/내외 컬렉터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가장 공적인 장소이자, 해외 작가들의 작품을 국내 컬렉터에게 소개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또한 서울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미술계 최고의 인프라를 지니고 있는 지역적 이점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미술시장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 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북촌 지역에는 국내 최대 화랑인 갤러리 현대와 국제 갤러리를 비롯해 학교재 갤러리, 아라리오 갤러리, 국립민속박물관, 고궁박물관, 금호 미술관, 아트선재센터, 미술품 경매회사 크리스티 등 대형 미술관련

전시공간 60 여곳이 자리 잡고 있다. 화랑과 미술관, 박물관 이외에 아트숍이나 디자인숍까지 더하면 북촌에 있는 각종 미술문화 시설은 200 여 곳에 이른다.



그림 11. 서울 북촌 주요 미술관, 박물관, 화랑

이 가운데 최근 1~2 년 사이에 북촌 일대에 들어선 새 화랑만 20 여곳에 달한다. 갤러리 스케이프, 갤러리 아원, 갤러리 예쁘꼬, 갤러리 자작나무, 갤러리 피프틴, 갤러리 GMA, 이도 갤러리, 학아재 갤러리, 아트웍스파리서울 갤러리, 옵시스트 아트갤러리 등이다. 또한 지난해 국내에서 유통된 미술품 약 4000 억원 가운데 30% 정도가 북촌

일대에서 거래된 것으로 미술계는 추정하고 있다 (김경갑, 2014). 이와 같은 북촌의 미술시장 활성화와 바쁜 큐레이터들의 움직임을 언론과 미술계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 100 만 관객 돌파의 낙수 효과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국제 갤러리, 학고재, 아라리오, PKM 갤러리 등을 필두로 국내 유명 작가들을 유치해 해외 미술 애호가와 관광객들에 소개하는데 주력하고, 또 한 편으로는 도널드 저드, 줄리 오피, 마류밍, 장 샤오강 등 해외 인기 작가들의 작품을 국내 컬렉터들에게 소개하는 등의 차별화 전략을 이루어 가고 있다. 이에 한국 화랑협회는 “북촌 일대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으로 대규모 미술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며 “해외 미술 애호가와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촌 일대를 국제적인 ‘아트밸리’로 지정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정도로 서울관 개관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미술계의 적극적인 반응에는 미술관의 공적 기능 가운데 컬렉터와 작가를 연결하는 중간역할도 강조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주요 미술관들이 작가 발굴뿐 아니라 컬렉터들과 작가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이미 오래된 사실이다. 미국의 현대미술관 (MoMA)의 경우는 초대 관장인 알프레드 바 2 세 때부터 미술관의 학예대표 또는 관장이 직접 대표 컬렉터들이 작품을 구입할 당시부터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추후 기증/기부를 약속 받고 그 과정에서 현재 역사적으로 주목 받는 작가들의 성공이 탄생하기도 하였다.

이미 변화하고 있는 북촌의 갤러리들과 마찬가지로 서울관이 젊고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 미술 작가들을 선정하여 전시함으로써 해외 컬렉터들에게 한국의 작가들을 알리고 또한 해외의 신진 작가들의 작품과 전시를 한국의 관객들에게 전달하여 한국 현대 미술에 다양성과 추가적인 자원의 유입을 불러 들일 수 있다면 이는 예술적 공공성의 증진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울관의 현대미술 컬렉션의 확대는 궁극적으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예술 작품의 소비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사람들이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린다는 측면에서 문화예술적 공공성의 증진에 크게 기여한다고 본다. 즉 서울관이 단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작품 뿐 아니라 새로운 컬렉션 확장의 발판이 되고, 주변 문화 예술계 인프라에도 긍정적 자극과 소속작가들의 전시를 연계 기획 함으로써 지리적 근접성과 지역적 문화 벨트로서의 상징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5.3 도시적 공공성

서울관의 건축적 공공성과 예술적 공공성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제공하는 공적 기능과 가치에도 기여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서울이라는 수도의 중심에 생긴다는 것은 기무사라는 장소, 북촌이라는 문화 예술적 지역을 넘어서 국가 문화적으로 중요한 전환이라고 받아들여져 왔다. 이는 서울이라는 수도에 대표적 현대미술관이 없었다는 사실과 이와 같은 미술관이 갖는 도시 문화적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다른 여타 도심 미술관들은 문화적 자존심으로까지 해석되며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곤 했다. 단지 랜드마크에 그치지 않고 그 도시의 성격, 국민적 특성과 결합하여 문화적 가치를 재현해 냄으로써 도시의 정체성을 더욱 발전시킨 사례들로 빌바오 구겐하임, 뽵피두 센터, 테이트 모던 등을 들기도 한다. 실제 이들 미술관 건립과 더불어 낙후되었던 도시가 되살아나고 관광객이 크게 늘었으며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진 사례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려져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관이 경복궁을 옆에두고 한국 근현대사의 질곡을 담고 있는 기무사 부지에 자리잡고 북촌 한옥마을이라는 문화적 공간과 상생한다는 것만으로도 지역의 맥락을 반영한 도시적 공공성을 고려한 기획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서울관은 그 논의의 시작이 된 과천 현대미술관의 서울 이전이라는 접근성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했다. 서울관이 들어선 소격동 165 번지는 청와대, 문화관광부, 경복궁, 북촌, 인사동 등이 인접해 있는 서울의 문화·행정의 중심지에 해당되는 곳이다. 이러한 접근성은 단지 미술관 방문의 일상성과 반복성을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 지역의 새로운 정체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사람들이 특정 지역을 방문하면서 발생하는 경험은 단지 미술품, 건축을 인지하고 관람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그 경험을 통해 해당 지역이 제공하는 문화와 가치를 인지하게 되고 공유함으로써 다수의 사람들이 그 지역의 정체성을 인지해 나간다는 것이 도시적 공공성의 요인인 장소성에 의해 실현되는 공동체성이다.

지역의 정체성을 인지하고 도시적 공공성을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이 논문은 서울관을 통해 생겨난 도시 공간들의 연결의 증가, 현대와 역사의 만남이라는 장소성, 상징적 문화/관광 지도의 재편성에 주목하여 도시적 공공성의 확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건축적 공공성에서 설명한 마당과 통로를 통한 지역 간의 연결성은 좀 더 넓은 도시적 관점에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아래 그림 12의 왼쪽은 기존의 도로를 통해서 움직이는 경로와 오른쪽의 서울관을 향하는 보행 경로이다. 이 두 그림은 서울관이 폐쇄적 기무사 부지로 존재할 때 사람들의 지역을 이동하는 동선과 서울관이 생긴 이후 주된 사용자 경로가 현격히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서울관을 통해 열린 공간이 생김으로써 과거 분리되어온 삼청동 길과 북촌로, 율곡로를 이어주면서 전체적인 인구의 유입과 접근성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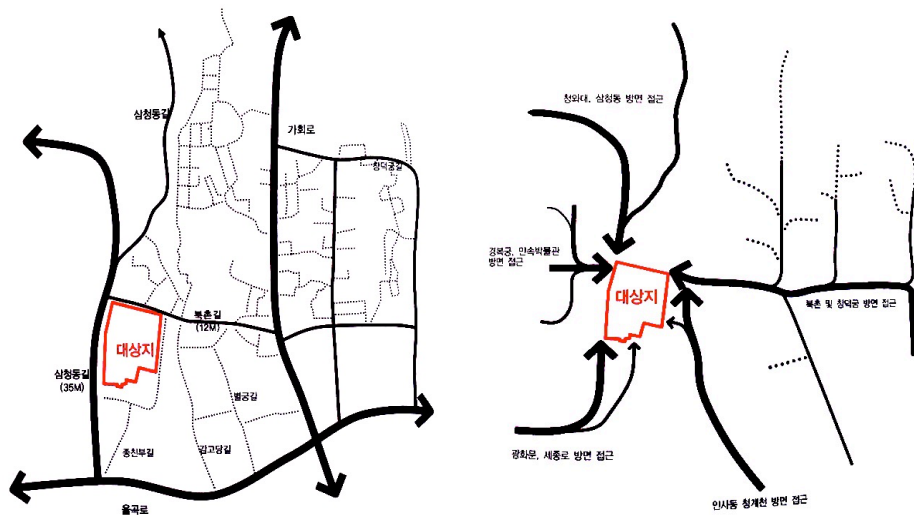


그림 12. 서울관 주변 도로 및 보행 경로의 변화

이러한 사람들의 유입과 접근성의 제고는 이미 북촌이라는 문화 자원이 있었기에 그 빛을 더욱 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북촌을 서울시의 대표적인 관광자원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2007 년부터 북촌의 전통 문화활동 지원을 계획, 추진해왔으며 문화재청도 2006 년부터 서울 역사도시 선정과 연계 북촌 한옥마을 정비와 보전 계획을 추진해 오다 2007 년 1 월 17 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북촌 한옥마을 일대를 역사문화지구로 변경하여 지정하였다. 기존 계획에서 제외되었던 기무사와 예전 미대사관 숙소, 현대 사옥 용지 등이 새로 포함되면서 면적이 4 만평이상으로 늘어나 서울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지구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이것은 기무사 부지에 현대미술관 건립을 논하는 시초가 되기도 하였다.

북촌은 그림 13 의 문화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문화재 20 개소를 포함 60 여개가 넘는 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이미 현존하는 문화재들을 통해서 서울관이 제공하는 현대미술과 역사와의 교류를 체험할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을 관람객과 유동인구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관은 경복궁, 북촌이라는 충성한 문화자원을 통해 다른 장소에서는 생겨날 수 없는 현대와 역사를 잇는 서울의 장소성과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시설면에서도 5 위로 관광잠재력 1 등급을 차지하고 있다. 즉 문화 자원을 통한 관광자원화와 주변 역사/관광 지역들을 잇는 허브로서 작동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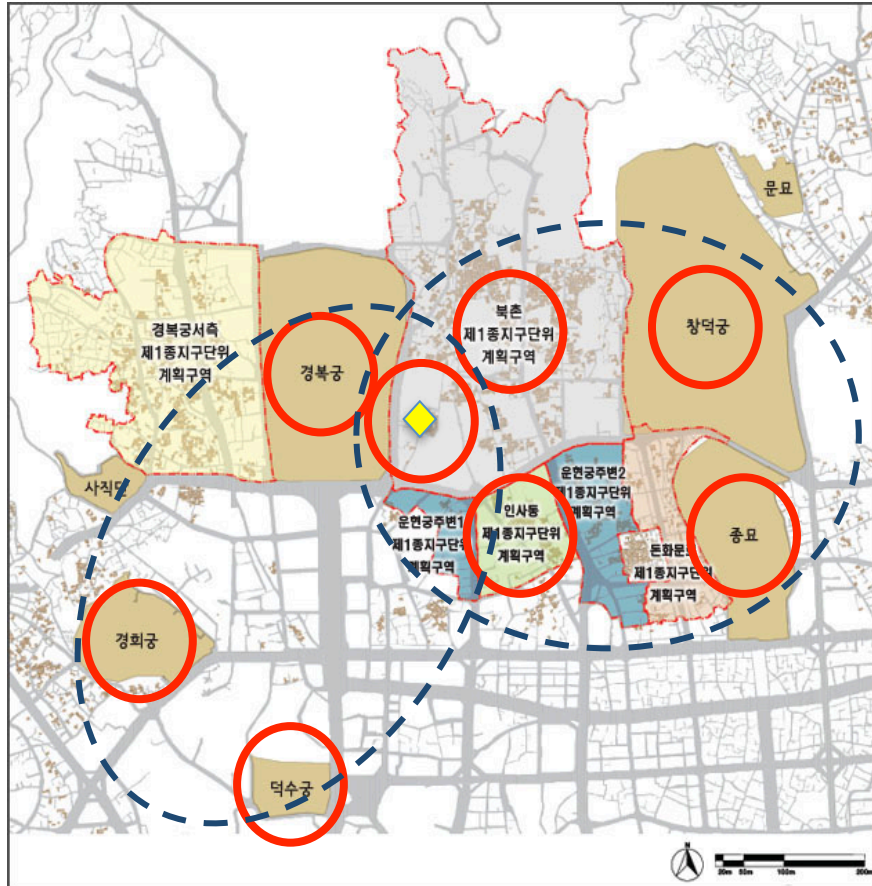


그림 14. 북촌 및 인근 지구단위 계획 구역

그림 14 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서울관을 둘러싼 종로구는 전통적인 관광자원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인사동 상업지구와 삼청동 상업지구가 발달하면서 전통적인 관광지구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서울관이라는 현대 서울의 문화적 모습이 더해지면서 각각의 궁들과 상업지역들은 하나의 영역으로 묶일수 있는 조합을 갖추게

되었다. 예를 들어, 덕수궁, 경복궁, 서울관, 북촌을 잇는 전통-현대-상업 공간 또는 창덕궁, 종묘, 인사동, 서울관을 잇는 전통-상업-현대 공간이 가능해진 것이다. 서울관은 비록 하나의 미술관에 불과하지만 현대 미술이라는 장르적 특성이 역사와 전통을 강조하는 종로/북촌 지역과 만나 훨씬 다양한 서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조합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 도시의 정체성과 상징적 이미지 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서울이라는 도시가 지닌 다양한 문화정체성을 선보이고, 서울 시민들에게는 전통과 현대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울이라는 도시의 공동체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 6 장. 결론 및 논의점

6.1 결론

"It doesn't matter how the paint is put on, as long as something is said." — Jackson Pollock

미술작품이 어떻게 걸리는가 보다 어떻게 이야기되고 해석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잭슨 폴록의 말처럼, 현대 사회에서 미술관은 다양한 종류의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작품과 관객, 작품과 공간, 관객과 건축, 그리고 미술관과 도시라는 측면까지 미술관의 구성요소들과 미술관을 통해서 다양한 소통이 일어나고 이 소통을 통해 공공성이 발현되고 있음을 본 논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소통의 결과로서의 공공성을 건축적, 예술적, 도시적 공공성의 요인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에 따른 공공성의 효과를 국립현대 미술관 서울관 사례에 비추어 확인했다. 도심 미술관의 공공성이 갖는 특성을 건축적, 예술적, 도시적 공공성으로 나누어 유사점과 차별점을 검토함으로써, 미술관만이 제공할 수 있는 공적 가치들을 도출했다. 기존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본관과는 달리 컨템포러리 미술을 담기 위한 공간, 기무사라는 역사적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생산해내는 과정에서, 동대문 DDP 또는 이우환 미술관 등 랜드마크적 접근 방식을 버리고, 위계없는 수평적

건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미술관이 갖는 공공성만큼이나 지역과의 소통에 중요한 기능을 더하고 있다. 여기서 소통이 강조될 수 있는건 서울관이 갖는 전이공간적 특성 때문이라는 걸 확인 할 수 있었다. 전이공간이 중요한 것은 기존의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기능을 단순히 연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지역이 갖는 정체성에 새로운 의미를 더할 수 있는 참여적 기회를 부여했다는데에 그 의의가 크다. 이러한 특징은 단순히 이 장소가 어떻게 이해되는가에 그치지 않고 이후 이 지역이 지니고 있는 상징 경제(Symbolic Economy)의 활성화를 통해, 물리적 정체성 즉 공익적 관점의 공공성 증진으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개관이라는 하나의 미술관 사례로만 본다면, 이는 과대해석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거점 공간이 기존의 지역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공간의 내/외부가 어떻게 상호작용 하며 궁극적으로 지역과 도시에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를 단계별로 살펴보는 것은 미술관이라는 개별 사례도 건축적, 도시적 공공성의 전체 그림에 중요한 요인으로 읽힐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미술관 또는 새로운 공간이 그 지역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가를 추적하며 도시의 상징 자본의 추가라는 측면에서 이 사례를 읽는다면, 이는 요즘 과도하게 드러나는 랜드마크 만들기에 치중한 개발과 가시성을 강조하는 관점들을 다원화 할 수 있는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라는 하나의 미술관을 다면적으로 분석한 현 사례는 각기 다른 공공성간의 연결고리들을 함께 살펴보고 통합적으로

해석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데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특히 국립미술관의 도심 설립을 계획에서부터 개관식 그리고 개관후 관람객들의 반응까지를 직접 참여하여 관찰 할 수 있는 질적 연구의 기회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본 연구의 사례적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제 막 1 주년을 지난 서울관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 원래 계획되어 있던 주변 공간과의 구별을 위한 담장의 공사는 주민들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주변 공간으로의 통로와 경로, 개방성과 연계성은 곧 전이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다시 한번 애초의 가벽 계획에 대한 재고의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6.2 한계 및 시사점

본 논문도 다른 많은 논문들과 마찬가지로 논문의 실증적 한계와 이론적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서울관 사례가 다른 사례와의 비교 또는 일반화의 어려움이다. 국립미술관 자체가 많지 않다는 실질적 한계점도 있지만, 다수의 국립미술관들을 비교할 경우 너무 다른 미술관의 성향과 구성방식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문화적 차이에 배태되어 있는 차이점뿐 아니라, 이를 아우르는 일반적인 공공성들 간의 상호관계와 매카니즘을 살펴보는 것은 여전히 의의가 있을 것이다. 다수의 미술관 설립의 사례를 통해 비교분석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샘플이 구해질 경우 양적 연구를 통해 보다 높은 일반화를 이룰 수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짧은 역사는 충분한 자료의 수집을 어렵게 하고 라이트 센서링을 가져오고 있다. 이는 서울관이 경험하고 있는 관객 소통의 관점들이 초기 미술관의 일부 특수성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관이 갖는 건축적, 문화적, 도시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는 좀 더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2차 자료, 즉 서울관에 관련된 기존 연구, 기사, 정부 보고서 등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미술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공공성이라는 개념의 모호성을 설문이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실증적으로 테스트 할 수 있다면, 실제로 사회변화에 따라 발달한 공공성의 지표들을 분류하는 새로운 기준들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김도형(1998), "을지로 제 5 지구 도심 재개발 현상 설계안에 나타난
‘건축적 공공성’에 관한 분석 연구",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제 18 권 2 호.
- 김동일(2007),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미술관에 관한 사회학적 시론",
「미학예술학연구」, 25 호.
- 김명옥(2009), "폐건물의 재생에 의한 현대미술관의 운영전략과
프로그램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 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 18 권 3 호, 29-38.
- 김상조(2007), "공공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공급방향,
국토연구원.
- 김석환 외(2007), "공공성 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도시구조의 모색",
「건축가」 통권 225 호, 8~10 쪽.
- 김왕식(2006), 지역문화시설의 공공성을 반영하기 위한 건축계획 요소
연구: 경기 지역 문화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산업대
석사학위 논문.
- 김영빈 · 이현호(2011), "공공성 요소를 통한 전통시장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계획계 제 31 권
제 1 호 통권 (55 집)

- 김은아 외(2008), "도시디자인과 공공성의 시대적 의미변화: 도시 해석을 중심으로", 디지털 디자인학 연구 제 8 권 제 1 호 통권 17 호, 477~486 쪽
- 김지은 · 김신원(2013), "도시재생을 위한 유희 산업시설의 리노베이션 방법에 관한 연구: 문화공간으로 재활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 디자인학 연구 제 14 권 1 호.
- 김지한(2005), 서소문지역 문화 및 집회시설을 통한 공공성 증대에 관한 연구: 서울시청 별관 및 서울시립 미술관 일대를 중심으로, 홍익대 석사학위 논문.
- 김진욱(2003), 도시공간 활성화를 위한 기업참여 건축물의 공공성 분석에 관한 연구, 중앙 대 석사학위논문.
- 김창수(2009), 「구 기무사 본관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활용에 대한 타당성 및 방향성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김천권 외(2011), 박물관과 도시개발, 한국 지역개발 학회지 23/1.
- 김혜천(2013), 한국적 도시재생의 개념과 유형,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6 집 3 호 1-22 쪽.
- 미디어리서치(2008), 국립현대미술관 이미지 및 미술문화 수요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4 쪽.
- 박삼철(2006), 「왜 공공미술인가」, 학교재.
- 박신영(2009),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현황 및 전시동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 박진수 · 김기수(2013), "공공성 측면에서 본 현행 도시재생정책 및 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도시설계학회」, 14 권 2 호.

- 박찬경 외(2008), "공공미술과 미술의 공공성", 「문화과학」 통권 제 53 호, 95~125 쪽.
- 서정숙(2001), 건축외부공간의 공공공지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 손광호 외(2005), "지역 미술관디자인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일본 석천현 김택 21C 현대미술관을 대상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 14 권 6 호 통권 제 53 호, 177~184 쪽.
- 송영석(2004), 일반상업지역의 개발에서 공공성을 증대하기 위한 연구: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일곽의 1990 년대의 개발 경험에 기반하여,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 신민수(2009), 도시 외부공간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공간구현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사학위 논문.
- 신승수 외(2009), "영국 공공도서관 프로젝트의 커뮤니티 기반 공공성 구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5 권 12 호.
- 에맥 · 알마즈 · 이기홍(2014), "박물관에서 재현된 도시정체성 - 터키 부르사시립박물관의 사례", 「사회와 역사」, 102.
- 윤난지(2002), "성전과 백화점 사이: 후기 자본주의 시대의 미술관", 미술사학보, 17 권.
- 윤지혜(2006), "실내 공적공간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한국 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 16 권 6 호.
- 이대규(2009), 국군기무사령부 건물을 활용한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계획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 이상호(2002), "복합용도 건물 내부광장의 공공성 분석에 관한 연구: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 18 권
제 6 호 통권 제 164 호, 61~68 쪽.
- 이슬기(2012), "공공미술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변화 및 도시공간 속
장르의 변화양상 고찰 - 뉴욕의 사례를 중심으로", 미술사학회
39 집.
- 이승지(2003), 도심 복합용도 건물 내부광장의 공공성 분석에 관한
연구: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이무용(2003),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장소마케팅 전략」,
논형.
- 이미혜(2013), "경복궁 옆 미술관", 「보그 Vogue」, 13.12.09.
- 이영철 외(2005), "우리 도시의 문화 정체성: 새로운 풍경 만들기
안양아트시티", SPACE, 통권 제 457 권, 98~145 쪽.
- 이윤희(2012), "공공공간에 나타나는 생태적 공공성의 디자인특성
분석 연구 - 뉴욕 맨해튼 지역의 재생 공간 및 오픈 스페이스를
중심으로", 디지털 디자인학 연구 12 권 2 호
- 이종욱(2003), Kevin Lynch 의 이론을 통한 한국 도시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연구: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국민대
석사학위논문.
- 이준(2004), "전시기획에서의 공공성과 전문성의 실현과 과제",
「현대미술관연구」, 15 권.
- 이진우(2012), 현대미술의 권력관계에 관한 문화교차적 연구, 국민대
박사논문.

- 이충현 · 김광현(2010), "도시에서 공공성을 찾기 위한 공공건축물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 30 권 제 1 호.
- 이필훈 외(2007), "건축의 공공성을 위한 다양한 모색", 「건축가」 통권 224 호, 6~29 쪽.
- 이효창 · 박정아 · 하미경(2008), "도시 복합용도시설에 나타난 건축적 ‘공공성’의 측성에 관한 연구: 일본 복합용도시설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 24 권, 6 호, 181-191.
- 이훈길(2003), "서울 도심 공공영역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 학술대회 논문집 .
- 임상진(1997), 건축적 공공성의 구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옥상(2003), 공공성과 창의력이 돋보이는 문화도시를 찾아서: 문화도시의 외국사례, 민 족예술 통권 97 호, 62~66 쪽.
- 장엽(2009), 국립현대미술관 40 년사, 현대미술관 연구논문집, 제 1 집, 국립현대미술관 2009, 87 쪽.
- 장은영(2002),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갑영(2009),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건립기본계획연구」, 문화체육 관광부.
- 정석(1997), "건축의 공공성과 도시건축가의 역할", 「대한건축학회지」, 제 41 권 1 호, 39-41.
- 조명래(2011), "문화적 도시재생과 공공성의 회복: 한국적 도시재생에 관한 비판적 성찰", 「공간과 사회」, 제 21 권 3 호.

- 조명래(2013), 도시의 공공성: 공공영역과 공공디자인을 중심으로,
NGO 연구 제 8 권 1 호, 115-131.
- 조선령(2007), 변화하는 문화 환경과 미술관의 공공성 문제: 기획
전시를 중심으로.
- 주효진(2011), 도심 어메니티 제공하는 미술관으로서 국립현대 미술관
서울관 계획안,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홍녕(2004), 공공성 향상을 위한 고층 오피스텔 저층부의
전이공간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논문집.
- 최기원(2004), 지역문화시설의 건축적 공공성을 구현하는 계획 요소에
관한 연구, 제 24 권, 23 호.
- 최문규(2011), "도시와 건축사이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계획",
「대한건축학회」 1110:76-79.
- 닐 코틀러 · 필립 코틀러 저 · 한종훈 · 이혜진 역(2005), 「박물관
미술관학 - 뮤지엄 경영과 전략」, 김영사, p 15-19.
- 테리 스미스(2013), 「컨템포러리 아트란 무엇인가」, 마로니에 북스.

외국 문헌

- Arendt, Hannah(1958), The Human Condi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lorida, R (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And How It's
Transfroming Work, Leisure, Community, and Everyday
Life. New York: Basic Books

- Jahanzsoozi, Julia(2006), "Relationships, Transparency, and Evaluation: The Implications for Public Relations". In L'Etang, Jacquie; Pieczka, Magda. Public relations: critical debates and contemporary practice. Routledge.
- Landry and Bianchini(1995), The Creative City. London: Demos.
- Lynch, Kevin(1981), A Theory of Good city Form, MIT Press.
- Mastai, Judith(2007), There is no such thing as a visitor, Museum after Modernism: Strategies of Engagement (eds Pollock and Zemans), Blackwell, p. 274.
- Rawlins, Brad L., Bowen, Shannon A.,(2005), "Publics". In Heath, Robert Lawrence. Encyclopedia of public relations 2. SAGE.

ABSTRACT

A Study on Contemporary Art Museum's

“Publicness” in the City

: A case study of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Bae, Jiwoon

Dept. of Urban and Regional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What is the role of art museum in modern cities? Why so many cities have tried to build their own art museums or galleries in order to grant a unique identity to the cities? As the rise of “the public” in modern society, museum has worked as a center to create, conserve, and diffuse cultural value of the time. However, previous researches

on the function of art museums mostly focused on art historical context, architectural and spatial analysis, or educational functions of an art museum independently than how these all aspects of an art museum are working together to create the symbolic and functional publicness of art museum.

In this study, I examine how architectural designs, artistic features, and geographical positioning in cities are all interconnected to create the value of “Publicness” in the art museums. Using the case of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which is recently opened at the site of former DSC (Defense Security Command) building, this study tries to answer how this new museum functions as a hub not only to connect different types of audiences from lay audiences and tourists to artists and international art professionals but also to connect geographically and culturally disconnected districts, thus creating synergic value of publicness around the museum.

NMMCA Seoul is a unique case to study the social and cultural role of art museum in city with multiple aspects. First the site has historical complexity and political importance as it has been used for Jongchin-Bu (Imperial Library and the Ministry of Human Resource of Chosun dynasty), Military Hospital during Japanese colonial era, and former DSC (Defense Security Command) building. Not only historical complexity, currently it is the center of cultural and touristic center close to Blue house, Korean presidential residence. The spatial and cultural complexities provide unique chance to observe how an art museum can interact with pre-existing socio-cultural condition and create values or conflicts. Not only the symbolic meaning of openness as an art museum from the closed DSC building, but also how traditional cultural district harmonize with contemporary art and tourism is key to understand the publicness of NMMCA, Seoul.

In order to analyze the NMMCA, Seoul's publicness, I have focused on the two function of this museum in order to create more and

efficient publicness, communication (connectedness) and transitional space. As the museum chose non-hierarchical architectural design, unlike other contemporary landmark buildings such as DDP or Seoul City Hall, the buildings still have a face of three different period, Chosun dynasty, 1970s and Now. The Madang, a court surrounded by these three buildings, give a critical function and symbolic meaning to connect different group of audiences and spaces as it opens to different districts, touristic district, art and cultural district, and commercial district. Also the island style exhibition spaces create its unique style of exhibitions which is more open to audiences and raise more attention on contemporary art from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t buyers. Finally these architectural and artistic distinction grant the function of transitional space to NMMCA, Seoul, to connect and reframe touristic attraction points.

The function of connectedness and transitional space of art museum is important to increase the publicness of art museum in city

because not only it connects separate audiences or districts but also it creates new identity to the city, which eventually enhance for people to understand and remember the city better.

Keywords: Architectural, Artistic and Civic Publicness. Museum. City.